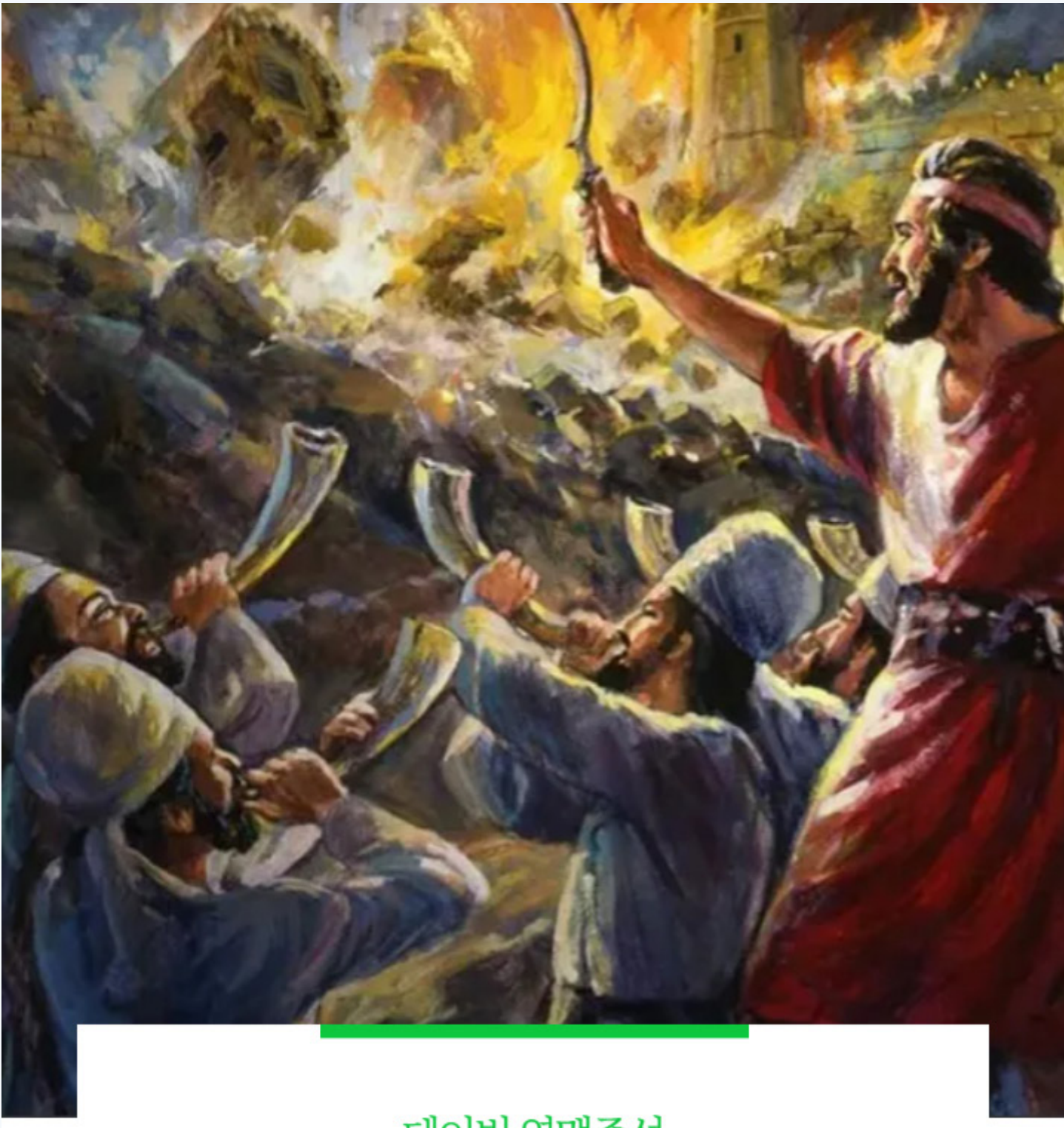


데이빗 영맥주석

여호수아서

David Spriritual Commentary

데이빗 영맥주석(David's Spiritual Commentary)

여호수아서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쭤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석으

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데이빗리 목사

여호수아서 1장 ==========

[수 1: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 1: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수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 1:4]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종'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하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시종'은 히브리어로 <메솨레트>인데 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쟁 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출 17:8-16). 그는 항상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도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출 33:11).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모세를 기다리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 한 명으로서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함으로써 지도자로서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땅의 경계를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고 모세에게 언급했던 땅의 경계였지만 다시금 여호수아에게 그 축복의 땅의 경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앞으로 취할 땅의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축복의 땅에 대한 약속도 똑 같습니다.

"[출 23:31] 내가 너의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네 손에 붙이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찌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의 경계는 오늘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땅은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이고, 서쪽으로는 대해(지중해)까지이고, 동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이며,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한번도 제대로 차지해 본 적이 없습니

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에 비해 매우 협소한 영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영토는 너무나 넓은데 정작 이스라엘은 매우 협소한 땅만 차지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타까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현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러한 안타까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꿈을 꾸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계획하신 축복은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취하기만 하면 내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나쁜 행동이지만 내게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반드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 1: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

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것 같이 너의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수 1:6]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마음에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너무도 많은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 주었을 것입니다. 지금껏 모세의 말만 잘 들으면 됐던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가 없어진 후의 마음은 온갖 두려움

뿐이었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모세의 명령과 지시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본 적이 없었던 여호수아는 매우 극심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으이 마음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대적과 싸우고 있으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듣지 않는 것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을 들어야 하며 들려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수 1:7]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수 1: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수 1:9]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되리라 약속하셨으며 어떠한 길이든 평탄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형통케 되어야 하며 우리는 날마다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믿음'만을 강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구약성경을 신약성경보다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은 '율법'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한 성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에 대해 언급하면서 복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시 1: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 1:2]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 1:3]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명령과 율법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 행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신앙을 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다소 능동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내지만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사람은 다소 수종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 행하며 오직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일 것입니다.

[수 1: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수 1:11] 진 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 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들려주신 위로의 말씀을 들은 후에 곧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을 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못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디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곧 바로 행동에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 바로 행동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이니까 그랬겠지'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곧 당신 스스로를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곧 '나니까 못하는거야'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당신은 곧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었어도 곧 바로 실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수 1: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수 1:13]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수 1:14]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수 1:15]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 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수 1:16]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수 1:17]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수 1:18]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백성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모세 때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정복했는데 그 때 정복한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세 지파에게 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선두에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하였던 것입니다(민 32:16-32).

저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들은 "...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16절)고 순종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17절)란 고백을 통해 여호수아의 말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바로 순종한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에 적극적인 순종심을 표명한 저들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모습이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

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대화를 기뻐 받으셨을까요.
저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직 한 가지 저들의 바램을 여호수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17절).
백성이 지도자에게 원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가 축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지식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재물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마음씨가 곱습니다. 어떤 지

도자는 인맥이 많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인물이 뛰어납니다. 수많은 지도자 중에 백성을 이롭게 할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할 지도자를 택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비록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실 때 그 사람은 위대한 지도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

[수 2: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것과는 달리 2명만 보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착출하여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개인적으로 두 명을 선택하였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탐꾼이 정탐하러 간다는 것을 알렸지만 여호수아는 매우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원문에는 "가만히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에 해당되는 단어 <헤레쉬>는 '조용히' 또는 '비밀히' 란 뜻으로 여호수아는 최대한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낸 이유 중 하나는 모세시대 때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온 백성이 상심에 빠졌고 하나님께 불평함으로 인해 40년동

안 광야에 방황하다 모두 죽임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자칫 잘못하다간 대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은밀하게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꾼이 머물렀던 집은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히브리어는 <조나>입니다. 이 말은 '간음하다', 또는 '매춘하다'는 뜻의 <조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만일 기생 라합의 집이 창녀집이라면 정탐꾼이 머무기에는 매우 적절한 장송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녀집은 머무를 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여행객을 맞이하는 장소였다면 기생 라합의 집은 유흥을 즐기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유숙할 수 있는 여관업도 함께 행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생 라합의 집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탐하기엔 안성맞춤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수 2:2]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수 2: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수 2: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수 2: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수 2:6]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정탐꾼이 얼마동안이나 기생 라합 집에 머물렀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정탐꾼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되어 결국은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일로 정탐꾼에게는 위험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붙잡히면 죽게 될 순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구출의 밧줄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열

으셨고 기생 라합을 통해 정탐꾼을 구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지붕 위에 놓인 삼대 속에 숨기고는 군사들에게 "...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4-5절)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만일 기생 라합이 거짓을 고하지 않고서 정탐꾼에 대해 사실대로 고했더라면 정탐꾼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생 라합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정탐꾼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수 2:7]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턱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수 2:8]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수 2: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수 2: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수 2: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 하지에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정탐꾼을 찾는 군사를 따돌려 놓은 후에 정탐꾼이 숨어 있는 지붕에 올라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마음상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였습니다. 라합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 성읍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며 간담이 녹아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일과 홍해 물이 말라진 사건과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인 시혼 왕과 바산 왕인 옥 왕을 격파한 일들로 인함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11절)고 신앙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읍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향해 두려움을 갖고 간담이 녹아져 있었지만 기생 라합은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러한 탁월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으며 후대에 이르러 역사에 남을만한 위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합은 유다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으니 참으로 축복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수 2:12]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수 2:13] 12절과 상동
[수 2:14]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수 2:15]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수 2:16]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실제로 기생 라합의 모든 가족은 여리고 성읍이 무너지고 주민들이 학살을 당하는 상황에서 살

아 남을 수 있었습니다.

"[수 6: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십니다. 하지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박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박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수 2:17]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수 2: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수 2: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수 2: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로 서약케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수 2:21]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 정탐꾼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댓가로 라합을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라합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군사가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에 붉은 줄을 보고 그 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붉은 줄을 매단 집은 조금

도 건드리지 못하게 명령하였으며 두 정탐꾼에게 라합 집에 거하는 모든 자를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배려했습니다.

"[수 6: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 함락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에 첫번째로 행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 정복의 첫번째 관문이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데 있어서 라합과 맺은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형제 간의 계약을 소중히 여기는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여리고 성읍 주민이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살려두지 않았

던 전쟁이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의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생 라합을 살려두는 것보다 차라리 불쌍한 어린아이를 살려주는 것이 더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비록 기생 라합과의 맺은 계약이었지만 그 계약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계약을 이루도록 배려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형제 간의 계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계약한 후에 마음이 변할 때 이내 곧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갖은 술수를 쓰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최대한 계약을 돌리려 하거나 이행치 않으려 합니다. 그러한 자신의 행동에 자신 스스로 떳떳하게 여기고 지혜롭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비록 세상의 지혜로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놓치는 미련함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제와의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께

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형제에게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와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저주가 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형제와의 계약을 제멋대로 파기하거나 이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로를 저주하신 이유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암 1: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붙였음이라"

두로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서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은 두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암 1:10]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두로왕 히람은 다윗왕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솔로몬과 계약을 맺고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최선으로 도왔던 자였습니다.

"[왕상 5:12]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런 두로가 일방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에돔에 넘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형제와의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편법을 이용하며 형제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수 2:22]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따르는 자가 돌아가도록 사흘을 거기 유하매 따르는 자가 그

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만나지 못하니라

정탐꾼은 산에 들어가 추적자들이 사라질 때까지 사흘 동안 머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탐꾼이 여리고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까지 돌아온 날을 계산해 보면 족히 1주일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안에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수 1: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수 1:11] 진 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 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 준비하라고 명하였고 또 다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3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수 3:1]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수 3:2] 삼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결국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3일'은 10여일을 훨씬 넘기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대면 이후에 곧 바로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3일 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결정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냈다기 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마치

고 난 후에 곧 바로 백성의 지도자를 불러서 3일 안에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라고 장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수 1:10]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수 1:11] 진 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삼 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어쩌면 여호수아는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의 결정이기 때문에 훨씬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10여일을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만 지체해도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더라면 아마도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지난 40년 전에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 온

백성이 절망에 빠져 모세를 비방하고 급기야 하나님께 불평을 터트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끔찍한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행히 두 명의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끔찍한 과거가 재현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의지도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만 자신의 혼적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수많은 생각들이 여호수아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혼적인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호수아에게는 가끔씩 인간의 혼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판단과 행동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정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과 거룩함이란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

식이나 인간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해야겠다는 의지도 대부분의 경우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이라고는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집중'입니다. 정결과 거룩의 과정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집중' 하지 못하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

[수 3:1]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수 3:2] 삼 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수 3:3]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드디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정탐꾼의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싯딤에서 떠나 요단강 옆에 유숙하면서 3일이 지났을 때 모든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를 따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언약궤를 따르라"고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항상 신본주의적인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늘 "언약궤를 따르라" 혹은 "제사장의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백성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특별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가 곧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지만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으며 언약궤를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여호수아는 신본주의적인 행동보다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레위지파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제사장을 높이 평가했고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좇도록 인도했다는 점이 탁월한 지도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고 스스로를 뛰어난 존재로 부각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높이는 그의 모습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수 3: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수 3: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수 3: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백성간의 거리를 2000 규빗으로 정하였습니다. 2000 규빗은 대략 1km 정도 됩니다. 1규빗이 남자의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굼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45cm에서 50cm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1규빗을 50cm로 계산할 때 2000규빗은 1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백성들로 하여금 1km 이내에는 언약궤에 근접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언약

궤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에 함부로 근접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훗날 이 2000 규빗의 거리를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반경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했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성결하다'란 히브리어 <코데쉬>는 몸과 마음 모두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인을 삼가거나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 정결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놓여져 있을 때에는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인생일대의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그

렇다면 지금 당장 성결하십시오. 성결은 정결과 거룩함입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내려 놓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비우십시오. 일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곧 정결입니다.

이러한 정결과 함께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거룩함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과 세상을 함께 바라보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이왕에 믿었으니 완전히 믿어 버리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러한 정결과 거룩함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수 3: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수 3: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수 3: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수 3:10]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수 3:11]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수 3:12]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십이 명을 택하라
[수 3:13]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수 3:14]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밝로 밟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어 온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늘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아버지께 모든 것을 전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그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하나님아버지께서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행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요 5: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 8: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 12: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담임목사가 무슨 안건

을 내 놓으면 맞느니 틀리니 하면서 옥신각신 트집을 잡거나 일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아름답게 행동하고 있으니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비춰질까요.

백성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지자가 백성처럼 살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자리에 내려와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 계셔야 하며 백성은 마땅히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로서 정결과 거룩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나라가 아름다워집니다.

[수 3:15]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수 3:16] 곧 위에서부터 흘러 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

으로 바로 건널새

[수 3: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시기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이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를 뜻하며 대략 태양력으로 4-5월 정도입니다. 그 때에는 항상 물이 넘쳐 흘렀는데 '언덕'에까지 넘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덕'이라는 것은 퇴적 작용으로 인해 요단강 양쪽에 생겨진 자연제방을 말합니다. 물이 '넘쳤다'는 말은 제방에 가득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쳐 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양력 4-5월 정도에는 요단강 물의 근원지인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최고 수위에 오르게 되는 때입니다. 이렇게 요단강 양쪽 제방이 범람할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강의 높이는 대략 3-4미터 정도까지 깊어지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밟을 때 흐르는 물이 멈췄던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일어나는 것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는 반드시 지도자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나누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에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 손으로 홍해를 가르켰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어쩌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우습게 보이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지팡

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손을 내민다고 해서 홍해 물이 어떻게 갈라지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을 밟으라 명했더니 제사장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거슬러 올라간 물결이 다시 급습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요단강 한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시간은 족히 반나절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명으로 추정하고 행진하는 대열의 폭을 1~2km 정도로 넓게 잡는다 할지라도 짐승과 어린아이들이 건너가는 시간을 계산할 때 족히 반나절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을 모두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언약궤와의 거리가 2000규빗(약 1km)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를 스쳐 지나갈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을 요단강에 세우셨

던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본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언엑궤를 멘 제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몸소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저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도자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먼저 해야 하며 가장 위험할 때 그 위험을 무릎써야 합니다. 백성보다 앞에서 행해야 하며 백성의 뒤를 수습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한결같이 그러합니다. 그 어떤 지도자도 대접받는 지도자가 없으며 오히려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

[수 4:1]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 4:2]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수 4:3]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둘을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수 4: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수 4: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메라
[수 4: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수 4: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요단강 언약궤를 멘 제사장에게 가서 근처의 돌을 채취하여 각 지파 수대로 하나씩 가져다가 유숙한 곳에 두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소 황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 것이 필요할까? 란 의구심을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무런 대구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순종하며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뜻에 맞지 않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수 4: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

데서 돌 열둘을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수 4: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착출된 사람이 메고 간 12개의 돌 외에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멘 제사장의 선 곳에다가 돌 열둘을 다시 세웠습니다. 도합 24개의 돌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가지고 간 돌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로 세워졌지만 여호수아가 세운 12개의 돌은 요단강 한 복판에 세워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돌이 보이지 않았겠지만 물이 빠지는 시기에는 여호수아가 세운 돌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세운 12개의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강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수 4:10] 궤를 멘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

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였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 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전해준 말을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선지자와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순종하겠지만 자신의 뜻과 맞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을 경우엔 그릇된 말이라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잘못된 말을 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려야 합니다.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기 보다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

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일의 결과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것은 모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복을 더하셨던 것입니다.
마땅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심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수 4: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모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비로소 강을 건넜습니다. 이미 요

단강을 건넌 백성들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서야 강을 건너는 모습을 지켜 보았습니다. ".....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11절).
200만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어림잡아 반나절 정도나 되었습니다. 요단강의 윗쪽 물이 멈췄기 때문에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물은 말랐을 것입니다.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백성들이 건너는 폭은 매우 넓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행진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백성들의 이동 폭은 1-2km 쯤 되었을 것입니다. 백성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으며 짐승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을 계산했을 때 족히 반나절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동안에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 폭판에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수 3:17]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지파였으며 그 중에도 아론자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을 위해 세우신 것보다는 백성을 위해 세우셨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가지 한 걸음도 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대로 발을 떼지 않기 위해 오히려 땅에 굳게 서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제 강물이 다시 흘러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결코 먼저 도망치지 않으려고 작정한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바로 저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수 4: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수 4:13] 사만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백성들의 선두에서 나가 싸울 준비를 갖췄습니다. 무장한 군사 4만명이 여리고 평지에서 전쟁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백성의 선두에서 행했던 것은 모세와 맺었던 언약때문이었습니다. 누군들 전쟁의 선두에 서고 싶겠습니까? 저들의 가족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어서 가족들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요단동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세와의 언약대로 선두에서 전쟁할 준비를 갖췄던 것입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킬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약속한대로 지켜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약속한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은 그만큼 약속한 것을 이행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수 4: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수 4: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 4: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수 4: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수 4:18]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하여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강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진

정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높이 세우기 위해 요단강물을 가르신 것입니다. 이는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홍해를 경험해보지 못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갈라진 사건은 40년 전 홍해가 갈라졌던 위대한 역사의 재현을 체험한 것이고 그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백성들에게 있어 여호수아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를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운 지도자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에게는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지도자에게도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두려워했던 두려움이나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모두 '경외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경외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지도자는 스스로 백성을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는 백성 스스로 지도

자를 두려워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 간에는 두려움이 존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해서 그것이 칼과 총으로 인한 두려움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곧 존경심과 함께 존재하는 '경외심'입니다. 이러한 경외심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이며 모든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바라 보십시오. 저들이 당신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지 보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권위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다는 것은 백성들 스스로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권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있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부여하셨고 백성들은 예

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받아야 합니다. 일부러 권위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헤롯대왕이나 하는 치사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바리새인이나 하는 치사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벗어버리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에 순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걸쳐 주시는 권위의 옷을 입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취하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주신 권위로 권위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며 곧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바라 보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듯이 당신을 크게 하십니다. 그렇게 당신은 높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수 4:19]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매
[수 4:20]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수 4: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수 4:22]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 진을 쳤던 때는 '첫째 달 십일'이었습니다. 이는 출애굽한지 40년에서 만 4일이 모자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난 다음 날에 출애굽을 하였기 때문에 길갈에 진을 쳤을 때는 유월절을 예비하는 때였습니다.
'첫째 달'은 히브리어로 <아빕월>인데 '아빕'이라는 말은 이미 익었으나 여전히 푸른 색을 띤 보리색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쯤에 해당되는 때로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아빕월'이라는 말대신에 '니산월'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수 4:2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수 4: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신 것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곧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히브리어 <야레>는 '경외하다'란 뜻 외에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잠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

라."

"[잠 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경외하다'란 단어는 이처럼 '두려워하다'란 뜻과 함께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놓쳐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하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십시오. 그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마십시오.

"[마 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호수아서 5장 ==========

[수 5:1]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수 5:2]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수 5: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요단 서편지역 족속 왕들은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앞에 어떻게 해 볼 수조차 없는 무력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요단 서편 족속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는 공격하기에 매우 적절한 때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공격할 때에 이미 저들의 마음

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습니다. '할례'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할례를 행하고 나면 적어도 2-3일은 거동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여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만일 적들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전멸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도강했단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던 요단 서편지역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 소식을 못들었을리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고 수치를 입었을 때 그것을 빌미로 세겜 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의 남성들을 몰살할 수 있었던 것은 세겜 성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창 34: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창 34:25] 제삼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 34:26]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 오고 [창 34: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창 34: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창 34:29]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시몬과 레위는 세겜 족속을 몰살하기 위해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의 계략은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나를 겁탈한 세겜은 오히려 디나를 사랑하여 디나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을 때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행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세겜 성 남

자들이 할례를 행하였을 때 틈을 타 세겜 성 남자들을 몰살한 것입니다.
길갈에서의 모든 남성들이 '할례'를 행한 것은 세겜 성 사람들처럼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 여리고성에서 길갈까지는 겨우 2km 밖에 안된 거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모양 저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극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폭탄에 불을

붙힌 꼴이었으나 폭탄이 터지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맛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체험이 없다면 신앙생활에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수 5: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수 5:5]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수 5:6]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수 5:7]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것은 저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5절). 출애굽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이 병들고 죽고 나이먹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직접 죽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 2:14]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삼십 팔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신 2:15]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 중에서 멸하신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 1: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변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될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20세 이상'된 자녀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 14:29]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이십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민 14: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어린 자녀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습

니다. 태어난지 만 8일이 될 때에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이미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한번도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입니다.

"[창 17: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던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확고히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기업의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효가 되며 파기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

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는 곧 세상과의 이별을 뜻합니다. 죽어서 세상과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껍데기가 떼어져 나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묻어 있는 세상의 찌꺼기가 떼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롬 2:28]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롬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수 5:8]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수 5:9]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의미는 '굴리다(roll)'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였습니다. 애굽사람의 핍박을 받으며 나라없는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주변 족속 사람들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은 길갈에서 굴러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모든 세상의 속박을 잘라버린 행위였으며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치를 통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의 수치는 나를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

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굴리신 세상의 수치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의 '길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것을 굴리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가난'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상처'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질병'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수치를 이 시간 굴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옭아 매었던 세상의 수치가 굴러갈 때에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수치가 떠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합니다.

[수 5:10]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수 5: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수 5:12]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었을 때 그 이후로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이 임하였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생활로 힘들어할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길갈에서 진을 친 이후로 만나를 먹을 수 없게 된 것은 이제 저들 스스로 땅을 개간하여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나가 필요할 때는 만나를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 주시기도 합니다. 직접 땅을 개간하여 음식을 취하게도 하십니다. 항상 만나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항상 까마귀를 통해 음식이 날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땅을 개간하여 먹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며 시시때때로 각양각색의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

을 부어주십니다.
만나가 필요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동안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만나를 공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몰아내야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만나가 끊어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다. 때때로 까마귀를 보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싸우길 원하십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 싸우지 않으면 고난이 닥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엄습하고 있는 문제를 향해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 싸우십시오.

[수 5: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

냐

[수 5:14]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수 5:15]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13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기 전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눈을 들어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눈을 내리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눈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왜 고개를 떨구고 있는지

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어떠한 문제를 당하게 되면 여호수아처럼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고개를 떨구고 있었던 것처럼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고개를 떨굽니다. 고개를 떨구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면 하늘의 것이 보여집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바라봤을 때는 고민 뿐이었지만 고개를 들었더니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칼에 손을 들고 서 있었습

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여호와의 군대장관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13절)라고 질문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사람이 여호와의 군대장관인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가까이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떠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을 땐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날지라도 그 사람이 마치 적군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적군을 돕는 자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사랑하는 배우자가 적군을 돕는 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문제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둘러 진을 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성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가까이 놓여져 있으면 문제는 더 큰 문제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문제

를 떠나 성전에 있으면 더 이상 문제는 커지지 않고 이내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14절).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행할 일을 바로 명령합니다. "..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15절).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 해결책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 만명의 천군군사들을 보내주시거나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달가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대뜸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신 것은 스스로를 돌이켜 정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정결하게 사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루는 것

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쟁하면 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에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어야만 싸울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승리를 위한 기도 뿐입니다. 신을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발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그리고는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누구인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그 사람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14절). 만일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천사였

다면 여호수아는 결코 절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명하셨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하나님이시며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간혹 육신을 덧입고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창 18: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창 18:2] 눈을 들어 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세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그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과 두 천사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천사는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있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셨으며 여호수아 앞에서 서신 '여호와의 군대장관'역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온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시대가 아니기때문에 필요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잠시적으로 임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

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문제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 다닐 것이며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당신에게 나타나십니다. 칼을 빼어 들고 나타나시는 여호와의 군대장관을 만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신 편이 아니어도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당신 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장

관을 통해 당신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비록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낼지라도 당신이 여호와의 군대장관과 함께 있는 한 그때그때 문제는 해결되며 당신은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배가 있으면 바다 위에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것처럼 문제의 바다 가운데 당신을 편히 눕게 하실 분은 여호와의 군대장관이십니다.

할 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며 '할례'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창 17:10)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할례의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반드시 행해졌던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지 8일만에 성전에 가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할례할 팔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눅 2:21-23)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의식을 명령하시면서 "[창 17:11]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양피'를 베라는 것입니다. '양피'는 남성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말합니다. 양피를 자르게 되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의학이 발달되었을 지라도 할례의식을 행한 남성은 며칠동안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합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잘못하다간 병균이 몸 속으로 들어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양피의 제거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양피가 베어지면서 흐르는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상징합니다. 또한 베어

진 양피는 세상적인 것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뜻합니다. 바울은 "대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의 영적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에 있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며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행 15장 참조).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골 2:11)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의식이 마치 세례의식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 2:12)고 언급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가나안 첫 관문

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우 고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수 5장)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고 정탐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두고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할례의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의식을 행하게 한 것은 저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저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새롭게 떠오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누워있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긴박한 때에 할례의식을 명령하셨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할례의식과 함께 더욱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남자고 여자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는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창 17:14)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

[수 6:1]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수 6: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수 6:3]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수 6:4]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수 6:5]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찌니라 하시매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 성읍 출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리

고성과 불과 2km 전방에서 이스라엘 온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지만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조금도 움직임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여리고성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던 며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성문을 굳게 닫았으며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길갈평지를 바라보면 육안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의 하는 행동을 지켜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읍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더하셔서 저들을 성읍에 묶여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지금이라도 당장 여리고성을 쳐들어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까지 전쟁을 도우려 합세하였으니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여리고성 함락은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다만 언약궤를 좇아 하루에 한 바

퀴씩 6일동안 여리고성을 돌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칠 일째에는 일곱 바퀴를 돌 것이며 마지막 일곱 바퀴를 돈 이후에 제사장의 양각나팔 소리에 맞춰 큰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 그 누구라도 순순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며 아무런 의심없이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것이지 어찌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리고 성읍은 난공불락과도 같은 성이여서 그 성벽의 두께와 높이는 과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데 어찌 사람의 목소리로 성읍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간혹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통 때같으면 듣겠으나 매우 심각한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내리십니다. 나가서 싸워야 할 때에 잠잠히 있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할 때에 오히려 잠잠하라 명하십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때에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차게 되며 그 안에는 의심의 마음도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수 6:6]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수 6:7]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찌니라
[수 6: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수 6:9]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함락해야 했던 여리고성은 오

늘날 '켈 에스 술탄(Tell es Sultan)'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사해에서 북쪽으로 12km 정도이고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9km 정도이며 예루살렘에서 대략 3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경고고학자들의 의견을 듣자면 그 당시 여리고성의 넓이는 대략 8에이커(대략 32 평방킬로미터) 정도라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매우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하고 있었고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으로 3-4미터 정도의 석조 장애물을 설치했고 그것을 여리고성의 중앙벽과 대략 35도의 각도로 기울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어떠한 적들의 공격이나 전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오직 장기전 뿐인데 이러한 장기전도 감행할 수 없는 이유는 여리고 성 근처에는 수많은 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연합국이 쳐들어 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굳게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것만이 저들에게는 최대의 공격과도 같은 것이

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뤄질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 마음에 의심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해괴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라며 불평을 털어놨을텐데 오히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한 마디 불평스런 말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며 이행했습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리는 백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는 것과 지도자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장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담임목사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대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사업장 대표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수 6: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레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찌니라 하고
[수 6:11]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외치는 순간까

지 외치지도 말며 들레지도 말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명하셨습니다. '들레다'는 히브리어 <솨마>로써 이는 '듣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들레지 말라는 말은 "너희 음성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체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명한 이유는 여리고 성읍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성을 돌고 있는 것을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일체의 소리를 내지 못하게 명한 것은 세상의 잡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놓고서 세상의 잡담을 하는 행위는 옳지 못하며 자칫 잘못하면 일을 그릇치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세상의 잡담을 좋아합니다.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 전화를 많이 합니다. 수많은 전화 메시지 소리는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실에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면 아마도 전화벨 소리때문에 기도를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전화벨 소리를 자주 듯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TV를 좋아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TV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 것도 시청하지 않더라도 그냥 TV를 틀어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는 TV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괜히 허전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알게 모르게 TV 소리에 길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잡담은 우리의 영혼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TV를 꺼야 합니다.

[수 6:12]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수 6:13]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수 6:14] 그 제이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수 6:15] 제칠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수 6:16]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수 6:17]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수 6:18]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수 6:19]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일지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과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로 채거나 몰래 숨겨 빼

돌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물건을 빼돌려 죽임을 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수 7: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수 7:25]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수 7:26]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간이 행했던 죄악과 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

질 하거나 빼돌리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 일부만을 달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십일조'와 '헌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까운 것입니다. 이는 아간이 스스로 공들여 취한 물건이기에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듯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고 명하셨습니다. '크게 소리지르다'는 말은 <테루아>인데 원래 이 단어는 <루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루아>는 '귀먹게 할 정도로 크게 소리 지르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일제히 큰 소리로 질렀던 함성을 통해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와르륵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루아> 단어가 주로 '언약궤'와 연관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실로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영에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를 때 땅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삼상 4:5]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 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또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을 때 온 백성이 즐거이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즐거이 부르다'는 말이 <테루아>였습니다.

"[삼하 6: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함성이 필요합니다. 온 교인이 함께 모여 큰 소리로 함성을 질러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수 6:2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수 6:23]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

라엘 진 밖에 두고
[수 6:24]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수 6:25]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 때에 라합과 그에 속한 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때는 생사가 왔다갔다 하는 매우 심각하고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생 라합의 안전을 지켜줬던 여호수아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이 본 받아야 할 성품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쉽게 잊어 버리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많은 이유와 변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며 거짓말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사람과 맺은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볼 때 마치 주님을 대하듯 해야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를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10: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

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푸는 선행은 곧 하나님께 선행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무슨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상급을 대신 갚아 주십니다.
지금 당신 주변을 바라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바라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는 어쩌면 당신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한 사람이 곧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당신에게 필요없는 사람이 직그히 작은 자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못 난 사람이 직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지극지 작은 자는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마다 주님을 대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삶 가운데 주님을 대할 수 있습니다.

[수 6:26] 여호수아가 그 때에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

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수 6:2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는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하거나 뭔가를 세우려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민족이었으며 악을 행하였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한 성읍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성읍이 세워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성읍을 짓게 합니다. 옛날의 여리고성은 지금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세상에 여리고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세상의 것들로 유혹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

[수 7:1]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수 7:2]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벧엘 동편 벧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수 7:3]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수 7:4] 백성중 삼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수 7:5] 아이 사람이 그들의 삼십육 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은 단숨에 아이성읍을 공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아이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과는 달리 이번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은 아이성을 과소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여호수아에게 2-3천명의 군사만 동원해도 충분히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그 즉시 3천명의 군사를 보내어 아이성을 공격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3천명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4천명 중 36인이 죽임을 당하였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보냈

던 정탐꾼의 말을 들은 후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었듯이 어쩌면 아이성에 보냈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늘 해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정탐꾼의 말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정탐꾼의 보고를 듣지 아니하고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다면 오히려 선입견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난공불락과도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아이성쯤이야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선택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선입견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아이성 함락은 매우 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여호수아는 선입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굴곡되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선입견을 통해 듣고자 하는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온전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벧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벧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벧엘은 팔레스틴 남북을 연결하는 경계지역이며 여리고 성읍을 지나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써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족장시대 때는 '루수'란 명칭으로 불리웠으며 가나안 정복 후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 사사 시대 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벧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 중심지였던 이곳은 베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 베냐민 지파 후손들에게 의해 재건되어 현재 "베이틴"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으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성경저자가 '아이성'를 언급할 때 '벧엘 동편 벧

아웬 곁에 있는 아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벧엘 동편 벧아웬'은 '사악한 집'이란 뜻을 지닌 곳입니다. '벧아웬(Bethawen)'은 벧엘의 가까이에 위치한 성읍으로 우상숭배가 왕성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성은 '벧엘'의 동남쪽으로 약 3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으며 아이성의 주민은 대략 1만 2천명 정도였으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은 대략 4천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매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수 8:25] 그 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일만 이천이라"

성경은 아이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5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여리고성읍 사람들이 물같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수 5:1]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승리하지 못하며 아무리 약한 군사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였어도 제대로 팔레스틴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는데 1973년 마지막 4차 중동전쟁을 치른 후에서야 비로소 제대로운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중동 나라들이 대거 일어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제대로운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결국 이스라엘이 모든 중동 나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

으셨다면 결코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함락 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100분의 1 정도로 약한 상대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때에 무슨 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 당신은 알아야 하며 그것이 다른 것보다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수 7:6]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수 7:7]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뻔 하였나이다

[수 7:8]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수 7:9]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로 인해 곧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아가 땅에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쓰며 해가 저물도록 그렇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간은 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시간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시는 죄는 오직 회개와 함께 하는 죄밖에는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온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슬픔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습니다. "....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라면서 "...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뻔 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선입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은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잘못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잘못을 탓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보다 하나님의 잘못을 들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개할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만이 회개가 필요한 법입니다. 여호수아는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서는 안됩니다. 선입견으로 하

나님의 음성을 그릇되이 들었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분노하며 옷을 찢어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 하나님보고 잘못했다고 해서도 안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이 스스로 잘못없다고 우기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한 것도 여호수아의 잘못이요 백성이 패배한 것도 여호수아의 잘못이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지도자이기에 그렇게 행동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지도자가 오늘날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 7:1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수 7:11]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수 7:12]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

께 있지 아니하리라
[수 7:13]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의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의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는지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여리고성 함락 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물건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리라"(11절).
하나님은 여호수에게 "…..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1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

는 이유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있어서 매우 나쁜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 중의 죄악이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몰래 도둑질한 자를 불로 태워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15절).
말라기는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밀린 십일조와 헌물을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아까운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업터를 잃게 될 것이며 재물을 잃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잃게 될 것이며 자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수 7:14]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수 7:15]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수 7:16]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수 7:17]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수 7:18]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는지 구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tribe)' - '족속(family)' - '가족(household)' - '남자(man)' 순서대로 세우셨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기본 조직입니다. 각 남자는 가정의 가정이 되며 그렇게 혈연적인 가정들이 모여 족속을 이룹니다. 족속은 각 지파별로 모여집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사람을 고르셨습니다. 그렇게 순서대로 제지뽑기를 통해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에서 주로 행하던 방식이었는데 목격자가 없을 때에도 범죄자를 찾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제비뽑기를 통해 선택되어져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욘 1:7]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뉘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수 7:19]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수 7:20]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 여차히 행하였나이다
[수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수 7:22]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취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수 7:23]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선택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모든 행한 일을 고하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아간이 죄를 자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진짜 범인이어야만 하나님의 제비뽑기가 맞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가리켜 "내 아들아"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가 한 가정의 가장인 아간을 매우 존중하며 아끼는 마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죄를 묻기 이전에 먼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간의 멱살을 잡고서 "야~ 이 나쁜 놈아! 네 놈이 범인이구나. 빨리 자백하지 못해!"라면서 언성을 높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먼저 아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려고만 합니다. 죄

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형벌을 가하기 이전에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눈만 뜨면 죄를 짓고 눈을 감아도 죄된 생각으로 가득차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누가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으며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인은 막다른 골목에 갇힌 자입니다.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형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런 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죄의 올가미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다시금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간음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죄스럽고 하나님께 죄스러워 자살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쩌면 그 사람은 이전까지는 착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매우 건전한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순간의 유혹을 참지 못해 결국 죄를 범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난 이후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고 가정으로 돌아가지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죄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그것은 재미가 있습니다. 신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죄인을 몰아갑니다. 의인이 되어서 죄인을 다그친다는 것은 매우 신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주 의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언제가 당신도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만 '왜 내가 의인처럼 행동했지?'라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이 죄인이 되었어도 지난 날 죄인에게 형벌을 요구했던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심하게 대하는 의인들을 향해 "사랑이 식었구나"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내린 형벌은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매우 끔찍했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 당해야만 했고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함께 불에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아간은 죽으면서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죽기까지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할 운명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편이 낫습니다. 아간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인생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인생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임 이후에도 저주가 임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는 자는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고 움추리지 마십시오. 죄 때문에 또 다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한번 망가졌다고해서 더욱 망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의 죄에서 멈추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해가 새롭게 떠오르듯이 당신의 삶도 새롭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죄는 버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수 7:2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수 7:25]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수 7:26]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과 그의 짐승과 가의 재물들을 모두 붙잡아서 아골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돌로 치라 명하였고 백성들은 저들을 향해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저들이 죽은 후에 불로 태웠고 그 위에 돌을 쌓아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보존케 하시고 그곳을 '아골 골짜기'로 불리워지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아골 골짜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극렬하신 분노

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분노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있을 때 어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사람은 아간처럼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아간은 죽어 없어졌고 이제는 돌무덤만 남아 있지만 여전히 그 돌무덤은 우리의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간과 같은 죄를 범한다면 우리 또한 아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죄로 인해 그런 처참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둑질로 여기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행위가 곧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십일조와 헌물

십일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십일조는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일조 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면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오히려 내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결한 헌물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기 싫으면서 억지로 헌금하는 경우는 상한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헛된제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 1: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올 헌물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원하며 드리는 헌물의 귀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은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본인이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축복과 연관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축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도록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에 관하여 정하신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법칙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물이 없어도 전혀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물이 필요해서 거둬드리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십일조와 헌물을 내기 싫습니까? 그러면 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심각하게 말씀 드립니다.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심은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생각하십시오. 그것마저 믿지 못하시겠거들랑 신경쓰지 마십시오. 심은대로 거두는 것도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일조 내는 사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나의 경우엔 수도 없이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목격했습니다. 십일조는 힘든 율법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분명합니다.
윗 구절에서 "나를 시험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일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지 시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에 의한 해석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십일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우리의 가진 물질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 어떠한 축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야 합니다. 눈에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십일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들이 십일조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불평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린 십일조와 헌물 뒤에 따라오는 축복을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불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기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십일조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십일조를 거두어서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십일조를 받아 그것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 "[민 18:23]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민 18:24]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거둬들인 십일조를 모두 레위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레위인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레위인을 배불리 먹이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한 다른 11지파는 풍성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각 지파마다 땅을 차지하였고 그 땅의 거한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지파는 아무런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11지파로부터 분배받은 48개의 성읍이 전부였습니다. 그 성읍 조차도 레위인들이 마음대로 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에게는 그 성읍이 없어지면 거할 처소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거둬드린 십일조를 모두 기업으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위인들도 십일조를 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십일조를 내게 하셨습니다.

> "[민 18:26]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십일조를 내게 하신 것은 십일조가 축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물질은 저들의 소득의 10분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 십일조가 아니라 십오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저들은 십일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소를 갖다 바치고 양이나 염소를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되었으며 안식년에도 땅을 경작하면 안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희년 때에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줘야 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헌금은 십오조 이상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헌금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으며 저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약해질 때에 어김없이 외세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고 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

[수 8: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하나님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 성의 모든 것을 여호수아 손에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세상으로부터 얻는 위로와는 비교 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매우 확실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전만 하더라도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해 낙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금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세상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도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매우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수 8:2]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수 8: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수 8:4]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

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수 8:5]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수 8:6]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수 8:7]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수 8:8]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하고
[수 8:9]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벧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2절)고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

님의 말씀대로 용사 3만 명을 뽑아 매복케 하였습니다. 아이성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매복'을 했기 때문이었으며 그러한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지혜와 지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지식은 성령의 은사 중 1,2번에 속한 은사입니다.

"[고전 12:8] 어떤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면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때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겠으나 모름지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제치고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찌기 엘리야에게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내 곧 이세벨의 위협을 받아 도망을 쳤습니다. 호렙산에 거한 엘리야는 그곳에서 내면에서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 그러한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왕상 19:9]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왕상 19:10]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왕상 19: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왕상 19: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왕상 19:13]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

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왕상 19:14]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이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란 구절이 두 차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번은 9절에 언급되고 있고 13절에 또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똑 같은 구절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졌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13절의 음성은 내면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들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외면의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사역에 지쳐 버렸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을 끝으로 더 이상 사역을 행하지 않

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사역이라고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세상과 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왕상 19:15]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왕상 19: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입성할 때까지 줄곧 내면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마차를 타고 입성하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하 2:11]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본문을 자세히 드려다 보면 9-10절과 13-14절이 반복하여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은 구절이 반복되어 적혀있다고 할지라도 처음 9-10절의 내용과 13-14절의 내용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9-10절에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산에 섰으라 명하시면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의 모습은 어쩌면 지금껏 엘리야가 행했던 그의 사역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강한 바람과 같았으며 지진과 같았고 불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13-14절에서의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엘리야로 변화시켜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세미한'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한 세미한 소리는 그의 사역 스타일을 다르게 바꿔줬습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내면에 계시는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

다. 지금껏 외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던 엘리야가 내면에 계시는 성령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19장을 넘겨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세미한 음성을 들은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점은 더 이상 엘리야가 사역 최전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에는 엘리야가 없는 '선지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입성하는 열왕기하 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양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기까지 선지자들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승천하기 전까지 여러 지역에 선지자학교를 세워 선지자들을 양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하였지만 그가 양성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내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역의 최전방에 나서는 것보다 오히려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에 몰두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노력을 통해 이스라엘의 그루터기가 보존될 수 있었고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 8:10]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수 8:11] 그를 좇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수 8:12] 그가 오천 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벧엘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수 8:13]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삼만 명을 미리 가서 매복하도록 하였습니다.

"[수 8:3]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삼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아이성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다시 5천명 군사를 택하여 벧엘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켰습니다(13절). 그리고는 나머지 군사들을 아이성 북편에 진을 치게 했습니다(12절). 아이성 북편에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 북편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이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매복작전'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작전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매복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5천명이나 되는 군사를 매복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도합 3만 5천명의 군사가 매복을 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벧엘과 아이성 사이에서 매복을 하였습니다.
벧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9km 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곳으로 '벧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벧엘은 팔레스틴 남북을 연결하는 경계지역이며 여리고 성읍을 지나 지중해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써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족장시대 때는 '루수'란 명칭으로 불리웠으며 가나안 정복 후에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되었고 사사 시대 때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벧엘은 사무엘 선지자의 활동 중심지였던 이곳은 베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된 이후에 베냐민 지파 후손들에게 의해 재건되어 현재 "베이틴"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으며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수 8:14]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수 8:15]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수 8:16]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

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수 8:17] 아이와 벧엘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수아가 그 날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서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아이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에 벧엘 성읍 사람들도 함께 하였습니다. 벧엘은 아이 성읍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아이성읍이 함락을 당하면 벧엘 역시 함락의 위험이 있었음으로 함께 동맹을 맺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이성 왕은 1차 전쟁에서 손쉽게 이스라엘 군사를 꺾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도 그렇게 쉽게 승리할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수아 군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런 생각없이 곧바로 공격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섣부른 선택은 섣부른 행동을 낳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이 왕과 같은 섣부른 선택과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하지만 우리는 자주 섣부른 선택과 행동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깊이있게 동행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섣부른 선택과 행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 때문입니다.

[수 8:18]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수 8:19]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청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손에 들고 있는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호수의 신호에 따라 매복하고 있다가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 성읍을 점령

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매우 질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질서입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있었던 단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 8:26]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높이 쳐 든 것처럼 여호수아도 단창을 들었던 것입니다.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

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음성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는 단창을 높이 드십시오. 결코 단창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들고 있는 단창이 내려질 때 전쟁은 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에 단창이 들려있고 여전히 높이 쳐들고 있다면 전쟁은 승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행가 있을지라도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다른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내리지 마십시오. 손이 아프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단창 드는 일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에 단창이 들려있고 당신이 직접 단창을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당신을 따르는 사람을 바라 보십시오. 저들은 당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저들도 무너집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더욱 단창을 높이 드십시오. 단창을 높이 쳐들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멋

있지 않습니까?

[수 8:20]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수 8:21]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에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수 8:22]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수 8:23]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수 8:24]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수 8:25] 그 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일만 이천이라

하나님의 전략대로 아이성은 앞 뒤로 막혀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대군이 달려들었고 뒤에는 매복하고 있었던 3만 5천의 군사가 달려 들었으며 성읍마져 이미 함락을 당하고 말았으니 오고 가지도 못한 지경에 놓여진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아이성은 이스라엘에게 함락을 당하였으며 거민 1만 2천명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아이성 거민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이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 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일만 이천이라"(24-25절).

[수 8:26]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수 8:27]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들고 있었던 단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두 손을 높이 쳐 든 것과 같았습니다.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손을 들어 단창을 쥐었으니 백성들은 지도자의 손에 든 단창을 보며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단창

이 곧 백성들에게는 힘이요 확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단창을 들어야 합니다. 온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높이 든 단창은 백성들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와 함께 하시니 백성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수 8:28]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수 8:29]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 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 성읍은 돌무덤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성읍을 인도했던 아이 왕은 죽어 나무에 매달렸으며 해 질 때에 성문 어귀에 던져지고 그 시체 위에 돌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백성을 죽입니다. 아이 왕은 잘

못된 지도자였습니다. 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였으며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지도자였습니다. 저가 잘못된 지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그로 인해 죽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적군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니느웨성의 왕은 요나의 말을 듣고 곧바로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도 함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욘 3:4]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욘 3:5]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무론 대소하고 굵은 베를 입은지라 [욘 3:6]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재에 앉으니라 [욘 3:7]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욘 3:8]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욘 3:9]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욘 3:10]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당신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지도자를 떠나십시오. 만일 당신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떠나십시오. 당신은 잘못된 지도자를 만난 것때문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도자를 만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복이 임하는 길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도자라면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여호수아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였으니 당신도 그리 하십시오. "나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아니니 어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라는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날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날마다 회막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며 최선을 다해 충성스러운 보좌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신도 그리 하십시오. 당신을 가르친 스승을 찾아 가십시오. 당신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가르친 스승을 찾으십시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스승이듯이 당신에게도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을 존중하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를 존중했듯이 당신도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여호수아처럼 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은, 당신을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지시를 따르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이 땅에서의 본분을 다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백성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당신도 그리 될 것입니다.

[수 8:30]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수 8:31]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

으며
[수 8:32]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수 8:33]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 뿐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대로 함이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함락시킨 후에 곧장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나아간 것은 그곳에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의 거리는 32km(20마일) 정도였습니다. 백성들이 행군하기에 족히 이틀 정도는 소요되는 거리였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치뤄야 할 적들이 많고 그렇게 행진하다보면 적들의 침입을 받아 곤경에 빠질 수

도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발산까지 곧장 올라갔던 것은 모세의 명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에발산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신 27:4]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신 27:5]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찌니라 [신 27:6]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신 27:7]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 27:8]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찌니라"

아직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닌 시점에서 굳이 힘들게 에발산까지 이동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하나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아이성 정복 이후에 다른 일보다 먼저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수 8:34]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수 8:35]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에발산에서 저주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에발산에 단을 세웠고 그곳에서 백성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눠 서도록 했으며 저들로 하여금 축복과 저주의 말을 선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신 11: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러한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리심산에 올라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 저주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은 축복을 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은 저주받을 율법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을 받을 율법과 저주를 받을 율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받을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대로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의 말 대신에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배우자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하며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저주가 배우자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한대로 행하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율법을 선포한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지고 매우 풍성한 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한 에발산은 황량하며 벌거벗은 산이 되었습니다. 두 산 모두 세겜 성읍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지만 무엇을 선포했느냐에따라 그 산의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

[수 9:1]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수 9:2]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듣고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곳에는 가나안 여섯 족속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곳에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면 모두 일곱족속인 셈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아주 작은 족속으로서 다른 여섯 족속 사이에 끼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름이 제외된 듯 싶습니다.

[수 9:3]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수 9:4]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해어

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수 9:5]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수 9:6]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수 9:7]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수 9:8]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수 9:9]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수 9:10]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

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반응과는 달리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원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히위 족속(Hivites)에 속하는 거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히위 족속 왕의 의도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찾아가 화친을 맺었습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훗날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꾀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공격대상이 되는 족속은 모두 가나안 지역의 족속이기때문에 저들은 일부러 멀리서 왔다고 하였습니다. "….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9절).
일부러 멀리서 온 것처럼 꾸밀려고 해어진 전대와 해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두주 부대와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비록 이들이 거짓으로 꾸몄으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 생명을 부지 받습니다. 하지만 일곱 족속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수 9:11]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수 9:12]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수 9:13]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수 9:14]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수 9:15]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스라엘 지도자는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에 말려 들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 꾀를 내었고 그 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주 멀리 있는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음식을 상하게 했고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낡은 것으로 준비했고 신발도 낡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 오느라 그렇게 되었다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그러한 거짓말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속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

려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기브온 주민의 문제에 대해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브온 주민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청해 온 주민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브온 주민이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찮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기브온 주민들의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대하는 태도가 지극히 겸손하고 이스라엘을 높이 칭찬하는 분위기이다보니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게 된 것도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반드시 음성이 아니어도 감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여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쉬워보이는 문제나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여겨질 때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의 전쟁과 아이성과의 전쟁 때에는 매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부주위한 태도가 나타납니다. 힘들고 중요한 문제가 닥칠 때는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오히려 쉬워보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 9:16]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삼 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수 9:17]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삼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여아림이라
[수 9:18]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수 9:19]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

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수 9:20]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수 9:21]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화친을 맺은 이후 3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함락시킨 이후에 남방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서쪽을 향해 진격하였습니다. 그렇게 행군한지 3일이 되었을 때 기브온 주민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난 날 야곱의 12 아들들이 히위 족속을 속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추장에게 욕을 보인 후에 보복하기 위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결혼하

겠다고 속인 후에 할례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던 세겜 성 남자들을 모두 살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창 34:1-29). 그 사건이 지난 500년 후에 반대로 히위 족속의 기브온 주민에 의해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면 그 속이는 것으로 인해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속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남을 속이는 행동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 해발 700미터 정도인 가나안 중부지역의 주요 성읍입니다. 기브온은 후일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도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는 사울이 많은 기브온 주민을 죽인 내용이 나오는데 훗날 기브온 주민들은 다윗왕에게 사울 집에 보복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상 3: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비라'는 히위 족속 중의 한 성읍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기브온에서 서쪽으로 대략 3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브에롯'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대략 1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베냐민 지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기랏여아림'은 기브온 주민의 성읍들 가운데 하나로 '바알라' 또는 '기랏바알'이란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이 성읍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으며 언약궤가 이곳에 20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수 9:22]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서 심히 멀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수 9:23]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히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

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가 되리라
[수 9:24]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수 9:25]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수 9:26]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수 9:27]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긷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에게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에게 저주가 임

하는 이유는 저들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거짓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선을 위한 거짓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경우라도 선을 위해서 거짓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어떤 거짓이라도 반드시 그에 따른 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이유는 저들이 죽임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은 마귀로 인함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롬 9:17]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호수아서 10장 ==========

[수 10:1]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수 10:2]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수 10:3]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수 10:4]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수 10:5]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

을 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을 향한 두렵고 떨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은 주변의 헤브론 왕 호합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기브온 주민을 공격하자고 모의하였습니다. 이는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기브온 주민처럼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의 우상 섬김을 버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들이 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본보기로 기브온을 먼저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악한 일을 모의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안

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읍은 지중해에서 동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사해에서 서쪽으로 대략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살렘'이라고 불리웠으며(창 14:18), 사사시대에는 '여부스'라고 불리웠습니다(삿 19:10). 다윗 때는 '다윗 성'으로도 불리웠으며(삼하 5:6-10)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후에 헤브론에 이주해 살았으며(창 13:18)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요셉 또한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창 49:31, 창 50:13).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지역의 왕으로 7년간 다스렸습니다(삼하 2:11).
'야르뭇'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나중에 유다지파에 해당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명칭은 '얄무크"(Jarmuk)

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대략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가나안 정복후에 유다지파에 해다오디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의해 요새화가 되었으며(대하 11:9) 오날날의 '움 라기스'(Um Lakis)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에글론'은 라기스 동쪽으로 대략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며 가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수 10:6]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수 10:7]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수 10:8]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기브온 주민들은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쳐들어오자 황급히 여호수아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기브온에서 길갈까지는 대략 40km 정도이기 때문에 몇 시간 정도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온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호수아는 곧 바로 길갈을 향해 군사를 데리고 진격했습니다. 사실상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돕기 위해 그렇게 군사를 파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차피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른채했더라면 기브온 주민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브온을 도우라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재빨리 군사를 준비하여 기브온을 도우러 진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더욱 사랑과 헌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 25:40]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수 10:9]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수 10:10]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벧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수 10:11]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벧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이 위험에 놓여있다는 전갈을 받고서 급히 군사를 정비하여 전쟁에 가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갔습니다. 길갈과 기브온과의 거리는 대략 40km 정도였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달려도 하

루는 걸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말을 타고 달렸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보로 행진했을 것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에 걷는 거리가 20km 정도이니 군사들은 일반 성인보다 더 빠르게 움직였다면 하루나 이틀은 족히 걸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모리 족속들이 거하는 지역은 산악지대였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침부터 전심전력으로 군사를 이끌고 갔다면 저녁이 되었을 때 즈음해서 기브온 지역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밤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군사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기록하였는데 '갑자기'란 단어는 히브리어 <페타>로써 이는 '눈을 깜박거리다'라는 뜻으로 매우 빠르게 공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 군사들은 갑작스런 기습공격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철저하고 아모리 족속을 살륙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아모리 족속 군사들이 도망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다섯 민족이 모인 거대한 군사였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 전멸시키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큰 우박 덩이'를 내리셨습니다. 큰 우방 덩이는 도망치는 아모리 족속 군사들을 전멸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11절).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면 무조건 승리하십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실지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을 전멸하기 위해 친히 전쟁에 참여하셨으며 큰 우박 덩이를 쏟아 부이신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행동할 때에 실패가 기다립니다.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실패할 일도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무조건 성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벧호론'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6km 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벧호론은 상벧호론과 하벧호론이 있었느느데 대략 약 3km 에 걸쳐 가파른 바위투성이의 비탈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세가'는 아얄론 골짜기 남부의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베들레헴 서쪽으로 27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곳이었습니다(삼상 17:1).
'막게다'는 욥바에서 남쪽으로 23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아세가와는 대략 3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수 10:12]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수 10:13]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수 10:14]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수 10:15]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수 10:16]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12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뢰다'는 말은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 ".....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라는 말이 연결됩니다. 여기서 어급되고 있는 '이르되'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마르>입니다. 한 문장에서 <다바르>와 <아마르>가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써 아마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이렇게 두 단어가 함께 언급된 문장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것은 <다바르>와 <아마르>의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한 부분에서는 <다바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아마르>로 쓰여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바르>라는 단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와 달이 멈추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바르>와 <아마르>가 다른 것은 <로고스>와 <레마>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다바르>와 <아마르>는 모두 '말(speak, say)'란 뜻이고 <로고스>와 <레마>는 모두 '말씀(word)'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다바르>와 <로고스>가 세상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아마르>와 <레마>는 그에 비해 영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

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모두 말을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말을 하고 덜 배운 사람도 말을 합니다. 남자도 말을 하고 여자도 말을 합니다. 어른도 말을 하고 어린아이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누가 세상적인 말을 하고 누가 영적인 말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말과 영적인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쌓고 뭔가 이해하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성경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시는 개인적인 계시로 전해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말이었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선한 뜻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여호수아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

를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인정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확답해 주셨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의 내뱉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요? <다바르>로 사용하셨을까요? 아니면 <아마르>로 사용하셨을까요? 히브리어 원어성경을 구하셔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아마르>란 단어로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는 <다바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확답하심으로 인해 여호수아의 말은 <아마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말이지만 선포는 하나님의 권세가 풍기는 말입니다. 기도와 선포는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며 어떤 영역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바르>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아마르>로 말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듣습니까? 아니면 <레마>로 받습니

까?

[수 10:17]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수 10:18]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수 10:19] 너희는 지체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수 10:20]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므로
[수 10:21]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군사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민족을 완전히 전멸시켰습니다. 다만 남은 몇 사람들이 견고한 성으로 피신하였을 뿐입니다. 이들이 견고

한 성으로 피신한 것은 전쟁을 위해 예비해 놓은 망대와 같은 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잠시 잠깐 위험에서 피할 곳을 찾은 것 뿐이지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들은 막다른 길에 막힌 쥐와 같은 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일은 잠시 뒷전에 미루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대적도 이스라엘을 향해 대적하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전멸시킨 사실은 삽시간에 주변 족속들의 귀에 들어갔을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찬 나머지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하자는 소리를 입 밖으로 꺼낼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당신을 대적하려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진멸하

실 것입니다.

[수 10:22]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수 10:23]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수 10:24]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수 10:25]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수 10:26]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수 10:27] 해 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수아는 사로잡은 다섯 왕을 백성들 앞에 끌고 오라 명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발로 밟으라 명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패장의 목을 밟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보통적으로 패장의 목을 밟은 것은 최고 장수가 행하였습니다. 이는 최고 장수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에게 패장의 목을 밟게 한 것은 그만큼 지휘관들의 권위와 명예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발로 짓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은 사탄을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명을 완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요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수 10:28] 그 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수 10:29]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막

게다에서 립나로 나아가서 립나와 싸우매
[수 10:30]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다섯 동맹국의 왕들을 처형한 후에 곧바로 여러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성읍을 진멸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행한 것처럼 모든 성읍주민을 진멸하였습니다. 성경은 "….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립나(30절), 라기스(32절), 게셀(33절), 에글론(35절), 헤브론(37절), 드빌(39절)에 똑같이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성읍 주민을 모두 죽였던 것은 그 어떠한 악도 용납치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빈다. 그 어떠한 악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립나'는 가나안 남부지역에 위치한 성읍으로 라기스 근처에 있습니다. 립나는 유다지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후에 레위지파에게 넘겨졌습니다.

[수 10:31]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수 10:32]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수 10:33] 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수 10:34]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수 10:35] 그 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이처럼 모든 성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 개

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직면한 문제에 개입 하시기를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라기스'는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대략 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가나안 정복후에 유다지파에 해다오디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에 의해 요새화가 되었으며(대하 11:9) 오날날의 '움 라기스'(Um Lakis)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게셀'은 라기스 북쪽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가는 교통지였습니다. 가나안 정복후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졌지만 후에 레위지파에게 넘겨졌습니다.

'에글론'은 라기스 동쪽으로 대략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며 가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수 10:36]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수 10:37]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수 10:38]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수 10:39]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의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립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수 10:40]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는 또 다시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성읍을 점령하였습니다. 헤브론 성읍 역시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

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드빌에서 싸워 그 성읍과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에 거주하는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40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에글론'은 라기스 동쪽으로 대략 40분 정도 떨어진 곳이며 가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2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는 유다지파에 분배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후에 헤브론에 이주해 살았으며(창 13:18)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요셉 또한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창 49:31, 창 50:13).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지역의 왕으로 7년간 다스렸습니

다(삼하 2:11).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정복 당시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네겝'은 네게브 지역을 위시하여 발레스틴 남부에 형성되어 있는 매우 광활한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수 10:41]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수 10:42]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수 10:43]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진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성읍과의 전쟁을 치루면서 모두 단번에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때 우리 또한 전전승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반도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모세는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의 38년간을 보냈습니다.
'가사'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8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지파에 속하였으며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다가 솔포몬 시대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히 정복하였습니다(왕상 4:24).

여호수아서 11장 ==========

[수 11:1]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수 11:2] 및 북방 산지와 긴네롯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수 11:3]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수 11:4]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의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수 11:5] 이 왕들이 모여 나아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 가에 함께 진 쳤더라

이스라엘이 남방 족속들을 모두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나머지 팔레스타인 지역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서로 동맹군을 결성했습니다. 이 전쟁이야 말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가 되는지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중요한 전쟁

이었으며 한 판 승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수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들의 수가 어찌나 많은지 "….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4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경에 살았던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그들은 보병 30만명과 기병대 1만명, 병거부대 2만명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솔'은 가나안 북부지역의 가장 크고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갈길리 바다 북쪽으로 대략 15km 정도에 위치했으며 성읍의 크기가 대략 200에이커나 되었다고 합니다. 1에이커가 1,200평 쯤 되기 때문에 하솔 성읍의 크기는 12만평쯤 되었습니다. 이는 여리고 성읍이 8 에이커인 것에 비해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빈 왕'은 하솔 성읍을 통치하던 왕이었으며 가나안 북부지역에서 최고 실권자로 그 권세가 막강했습니다. 야빈은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 가나안 모든 왕들을 소집하여 동맹군을 만들었습니다.

입니다.
'마돈'은 디베랴의 서북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시므론'은 대베랴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나안 북부 성읍이었습니다.
'악삽'은 악고에서 동남쪽으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의 텔키산 으로 추정됩니다.
'긴네롯 남편 아라바'는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를 포함하여 아카바 만까지 이어지는 저지대의 대계곡을 말합니다.
'평지'는 지중해안을 따라 욥바까지 이어지는 대평원지대를 말합니다.
'돌'은 가이샤라 북쪽으로 대략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팔레스틴 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오늘날의 '탄투라'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미스바'는 가나안 지역에 세 군데 지명이름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미스바와 베냐민 지파의 미스바가 아닌 또 다른 미스바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역은 헬몬산 동남쪽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 갈릴지 바다 북쪽에 위치한 산으

로써 한 여름에도 눈이 덮힐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이 산에서 흐르는 물이 고스란히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고 그 물이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메롬 물가'는 갈릴리 바다 서북방으로 대략 15km 정도 위치한 마을입니다. 하솔 왕 야빈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족속 왕들이 바로 이 메롬 물가에 모여 동맹군을 형성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수 11:6]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수 11:7]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 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수 11:8]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고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수 11:9]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

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 "...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전쟁에서의 승리를 확신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도자는 담대합니다. 용맹합니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지도자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답답하며 전쟁의 승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불안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지도자는 음성을 듣지 못한

지도자와 같이 불안해 합니다. 초조하며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에서 메몰 물가까지 도달하기에는 하루만에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메몰 물가 근처에서 가나안 북쪽 동맹군을 대적하기 위해 가까운 곳에 진을 구축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6절)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말은 매우 귀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의 뒷발 힘줄을 끊는다는 것은 귀한 짐승을 못쓰게 만드는 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거를 불사르라는 것도 너무나 귀한 전쟁도구를 없애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인간의 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낸 그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며 그 어떠한 인간의 지혜도 이용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 11:10]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 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수 11:11]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로 태웠습니다. 이는 하솔 성읍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악을 철저히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솔 성읍은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매우 큰 성읍으로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성읍이었습니다. 하솔 성읍의 야빈 왕은 모든 동맹군의 우두머리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솔 전체를 모두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마귀와 그의 추종자를 붙잡아 무저갱에 가둘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그의 추종자와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수 11:12]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수 11:13]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수 11:14]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수 11:15]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솔 성읍만 불로 태우고 나머지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노획물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여호수아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뛰어난 지도자였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보다 못

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암 3: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 11: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수 11: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죽였으며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이 완료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통해 차지했던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가나안 중부와 남부 그리고 북부에 걸쳐 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 15: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창 15: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

가 징벌할찌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 15:16]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 15:17]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은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의 때에 이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게 될 것과 또한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게 될 것을 모두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뤄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언약궤 안에 언약의 말씀이 담긴 돌판이 들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한 것을 바꿀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말씀보다 더 잘 들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말씀을 읽을 수만 있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성경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까? 오늘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부여받은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당신의 말보다 성경말씀으로 아뢸 때 훨씬 강력합니다.
'네겝'은 네게브 지역을 위시하여 발레스틴 남부에 형성되어 있는 매우 광활한 사막지대를 말합니다.
'고센'(goshen)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했던 애굽의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에 위치한 고센을 말합니다. 이곳은 헤브론에서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세일'은 '거칠고 험한 산지'란 뜻으로써 에돔지역의 산악지대입니다. 세일은 사해 남쪽과 아라바 동쪽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할락 산'은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지역에 있는 산으로써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대략 40km 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레바논 골찌기'는 베니게 해안에서 가까운 산악지대입니다.
'바알 갓'은 레바논 산과 헤르몬 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성읍은 가나안 땅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수 11:18]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지는

여러 날이라
[수 11:19]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수 11:20] 그들의 마음이 강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성경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18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늘 함께 동행했던 '갈렙'이 전쟁이 모두 끝날 때쯤의 나이가 85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 14: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갈렙은 처음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파송된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수 14:7]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1년은 호렙산에 거주하였고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만 38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40년째 되는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 강을 건넌 것입니다.

"[수 4:19] 정월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치매"

갈렙이 40세 때에 정탐꾼으로 선발되었고 요단 강을 건널 때까지 38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가나안 땅 정복이 완료되었을 때가 그의 나이 85세이

기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정복 기간은 7년이 소요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시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족속만 살아 남았는데 히위 족속 중의 기브온 주민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가나안 모든 족속이 진멸 당했는지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20절)이 그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부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그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악한 죄악을 뉘우치며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기브온 주민들이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했듯이 그들 또한 그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욱 하나님에 대해 완강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대로 진멸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는 커녕 믿는 자들을 협박하며

핍박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죽임을 당했듯이 그들 또한 진멸을 당할 것입니다.

[수 11:21] 그 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수 11:22]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수 11:23]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부분에 '아낙자손'에 대한 언급을 덧붙인 것은 '아낙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으로 떨게 했던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파송했던 12명의 정탐군은 아낙자손을

거인과 같아서 저들을 정복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그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민 13: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사람'은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이전에 그 땅에 거주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남방의 헤브론 지역에 거주하며 여러 산지에 흩어져 살았던 족속으로 키가 아주 크고 강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는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라는 속담마저 나돌 정도였습니다.

"[신 9:2] 그 백성은 네가 아는바 장대하고 많은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결국은 이스라엘에 공포심을 불어주고 지도자를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케 함으로써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던 '아낙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낙자손때문에 공포에 떨고 불평과 원망을 감추지 못했던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지만 저들의 자녀인 이스라엘 2세대에 의해 아낙자손은 거의 대부분 진멸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일부에만 남아 있었고 나머지 아낙자손은 모두 진멸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가져다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1세대라면 공포에 떨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2세대라면 공포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낙자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는 '아낙자손'은 항상 우리 곁에 존재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원망케 하는 '아낙자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낙자손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내가 1세대인가? 2세대인가? 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1세대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분명히 공포에 떨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이스라엘 2세대와 같은 사람이라면 비록 아낙자손이 있더라도 공포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이별한 후에 헤브론에 이주해 살았으며(창 13:18)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했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요셉 또한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창 49:31, 창 50:13). 이곳에 도피성이 있었으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이전에 먼저 헤브론에서 유다지역의 왕으로 7년간 다스렸습니다(삼하 2:11).

'드빌'은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약 20km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고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정복 당시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납'은 헤브론 남서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 '드빌'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가사'는 지중해안을 타고 가나안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블레셋의 5개 주요 성읍(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중의 하나입니다.
'가드'는 블레셋 5개 주요 성읍 중 하나로써 그들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윗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한때 언약궤가 이곳 가드에 머물기도 했습니다.
'아스돗'은 '가사'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주요 교통지였습니다. 이곳은 '다곤' 우상 숭배의 본산지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 ==========

[수 12:1]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수 12:2]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얍복 강까지며
[수 12:3]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벧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록까지며
[수 12:4]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브레이에 거하던 바산 왕 옥이라
[수 12:5]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요단강 동편 땅에 거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동편 땅이 저들 보기에

심히 비옥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심히 많은 가축 떼가 있었다고 언급하지만(1절)

"[민 3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민 32:2]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족장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민 32:3]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세밤과 느보와 베온 [민 32:4]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곳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민 32:5]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사실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축 떼가 없는 지파는 한 지파도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가축 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며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민 32:6]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았고자 하느냐 [민 32:7]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들은 모세의 책망을 들을 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민 32:16]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와 가로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민 32:17] 이 땅 거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로 그 견고한 성읍에 유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민 32:18]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민 32:19]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너무 지나치게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뜻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원했던대로 이뤄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선두에 나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 4: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저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집

중되어져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활을 제쳐두고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족 또한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모세 또한 자신의 가족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 여호수아 혼자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와 내 집"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족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딤전 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만 행할 것이 아니라 가족 또한 돌봐야 함을 먼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족을 돌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악하다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가족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순서입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북부 아라비아의 산지에서 서쪽으로 대략 30km 정도를 물줄기를 형성했던 긴 강이었습니다. 이 골짜기를 통해 강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아로논 골짜기 강은 모압과 아모리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민 21:13). 가나안 정복 후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할당된 영토의 남쪽 경계선이 되었습니다(신 3:12).

'헤르몬 산'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위치한 산으

로써 한 여름에도 눈이 덮힐 정도의 높은 산입니다. 이곳의 눈이 녹아 흘러 내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이 산은 아모리 왕국의 북방 경계선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곳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되었고 북방 한계선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동방 온 아라바'는 요단 동편의 남쪽 한계선인 아르논 골짜기에서 북방 한계선인 헤르몬 산까지를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경계로해서 남쪽은 아르논 골짜기, 북쪽은 헤르몬 산까지 갓 지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시혼 왕'은 헤스본의 왕이었습니다. 헤스본은 요단강 동쪽으로 대략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얍복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스본은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아모리 왕 시혼이 빼앗은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 이곳은 갓 지파에게 배분되었으며 나중엔 므라리 자손의 레위인에게 할당되었습니다(수 21:39). 모세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피하고자 사신을 보내 그 땅을 통과하려고 했지만 시혼왕이 모세의 뜻을 거부하여 결국은 진멸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민 21:12-30).

'아로엘'은 사해 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써 아르논강 북쪽 언덕에 있었습니다. 이 땅은 르우벤 지파에게 배분되었습니다.
'길르앗'은 아르논강과 야르묵강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길르앗은 엘리야의 고향이었으며 신약시대 때는 '베레아'로 불리워졌습니다. 오늘날의 '켈카(zerka)'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얍복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강으로써 그 길이가 대략 100km 정도됩니다. 야곱은 이 얍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창 32:24). 이 강은 시혼 왕국와 옥 왕국을 구분지어주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긴네롯 바다'는 갈릴리 호수의 별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그 길이가 남쪽으로 22km, 동서가 14km나 되는 무지하게 넓은 호수여서 그 느낌이 마치 바다와 같아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염해'는 사해의 별칭입니다. '아라바해' 또는 '동해'라고도 불리웁니다.
'벧여시못'은 헤스본 지역 성읍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었습니다(민 33:49).
벧여시못 – 모압 평지에 있는 헤스본 지역 성읍들 중의 하나로서, 나중에 르우벤 지파의 기업으로 할당된 곳이다.(13:20). 민 33:49에 따르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최후로 진을 쳤던 곳으로 나타나 있다.
'비스가 산록'은 비스가 산기슭을 말합니다. 비스가 산 정상에서는 모압 평지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며 사해까지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르우벤 지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신 3:27).
'르바'는 거인 족속인 르바임 족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스다롯'은 바산 왕 옥이 거주했던 성읍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동쪽으로 대략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텔 아스테레'(Tel Ashtereh)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드레이'는 바산 왕 옥이 거주했던 성읍으로 야르묵강의 남족지역의 절벽 위에 세워진 성읍

입니다. 모세는 에드레이 외곽에서 옥 왕과 싸워 그 성읍을 진멸하였습니다(민 21:33-35)
'옥' 은 바산의 왕으로서 그가 사용했던 침상의 길이가 4미터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에드레이 전투에서 모세에 의해 진멸 당했습니다(민 21:33-35).
'살르가'는 바산의 동쪽 경계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술'은 요단강 북동쪽 지역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술왕 달매의 딸인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삼하 3:3)
'마아가'는 헤르몬 산의 동남족에 위치한 작은 성읍으로 그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 12:6]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년의 대 장정의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요단 동편 땅은 고스란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것이었습

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이미 이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길을 떠났을 때에 저들의 가족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지파의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길갈은 모든 가나안 정복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본부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마다 합당한 이유를 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임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갈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수 12:7]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 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얻게 된 땅은 "...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까지..."(7절)였습니다. 이는 요단 동편의 땅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차지한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배분해 주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7년 동안 치러졌지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세월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출애굽했던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부모와 형제의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순종하며 전쟁

을 치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와 달리 2세대는 순종하는 백성이었습니다. 1세대는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면 2세대는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불순종한 사람과 순종한 사람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스라엘 2세대처럼 풍성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요단 강을 건넜을 때에만 하여도 저들이 누울 땅이 없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임합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 12:8]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수 12:9]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벧엘 곁

의 아이 왕이요
[수 12:10]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수 12:11]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수 12:12]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수 12:13]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수 12:14]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수 12:15] 하나는 립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수 12:16]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벧엘 왕이요
[수 12:17]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수 12:18]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랏사론 왕이요
[수 12:19]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수 12:20] 하나는 시므론 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수 12:21]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므깃도 왕이요
[수 12:22]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욕느암 왕이요
[수 12:23]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수 12:24]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삼십일 왕이었더라

또한 이스라엘이 취한 땅은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8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11장에서 똑같이 언급하였던 바입니다.

"[수 11:16]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수 11:17]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죽였으며"

이렇게 언급된 지역에는 "헷 족속과 아모리 족

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곳에 언급된 족속 중에는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다음과 같이 일곱 족속이 언급되었습니다.

"[신 7:1]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기르가스 족속은 갈릴리 바다를 경계로 삼아 남쪽으로는 가나안 족속과 북서쪽으로는 헷 족속에게 둘러싸여진 아주 조그마한 족속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족속에 비해 매우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은 430년을 애굽에 거했습니다.

"[출 12: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지 사백 삼십년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는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가득찰 때에 그 일이 이뤄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 15: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 15: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창 15: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창 15: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악이 가득찰 때까지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43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 28: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한 것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 14: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뤄질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에 그 약속을 당신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은 당신과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성경말씀이 축복받을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

[수 13:1]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의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수 13:2]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지방과 그술 사람의 전경
[수 13:3]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그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수 13:4]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므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수 13:5]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수 13:6]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

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수 13:7]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이가 많아 늙으매"라는 표현은 그가 임종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전쟁에서 취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죽음으로써 끝이 나는데 성경은 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10세라고 말하였습니다.

"[수 24:29]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세에 죽으매"

그 당시에 110세까지 살았으면 여호수아는 장수한 것입니다. 결코 빨리 죽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죽기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힘이 없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다소 황급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아직 취하지 않는 땅까지도 포

함하여서 배분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게 됨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이 일차적으로 끝을 맺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관하심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내 쫓는 일이 1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점차적으로 진행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출 23:29]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출 23:30]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거주할 곳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 가장 큰 업적이라 한다면 여호수아의 업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땅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더 많은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함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가나

안 족속과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참으로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길 원하셨습니다. 여호수아도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가나안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수 23:5]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채 지극히 작은 땅만 차지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은 참으로 넓고 큰 땅입니다. 오직 마음을 여호수아와 같이 하십시오. 여

호수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하시면 갔습니다. 어찌나 담대하였던지 해를 향해 "멈추라" 명할 때 해가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취하게 될 것입니다.

[수 13:8]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수 13:9]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수 13:10] 헤스본에 도읍하였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지경까지와
[수 13:11] 길르앗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지경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이른 온 바산
[수 13:12]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도읍하였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었어도

[수 13:13]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모세는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모두 진멸하였습니다. "….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12절). 비록 모세가 요단 동편에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을 모두 쫓아냈지만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13절).
모세가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을 모두 진멸하였지만 그 중에 진멸치 않고 남겨 두었던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던 것입니다. 그술 족속은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아갓 족속은 헤르몬 산 근처 수리아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로 인해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압살롬은 그술왕의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일 그술 족속이 완전히 진멸당했더라면 압살롬과 같은 자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별것 아닐거라는 생각으로 남겨둔 것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떠한 악한 것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것으로 인해 결국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실족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의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모든 더러운 물건을 치우십시오. 정리되지 않는 대인관계를 말끔히 정리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십시오. 사람과 원수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돌려 주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돌려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하지 마십시오. 오직 몸과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십시오. 마음의 욕심을 지우십시오. 재물이나 명예나 욕심이 들어간 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수 13: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

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
[수 13:15]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수 13:16] 그 지경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수 13:17]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벧 바알 므온과
[수 13:18]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수 13:19] 기랴다임과 십마와 골짜기 가운데 산에 있는 세렛 사할과
[수 13:20] 벧브올과 비스가 산록과 벧여시못과
[수 13:21]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 도읍한 아모리 사람 시혼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혼을 그 땅에 거하는 시혼의 방백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수 13:22]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도륙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술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었더라
[수 13:23] 르우벤 자손의 서편 경계는 요단과 그 강 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수 13:24]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 가족을 따라서 주었으니
[수 13:25] 그 지경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랍바 앞의 아로엘까지와
[수 13:26]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브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경까지와
[수 13:27] 골짜기에 있는 벧 하람과 벧니므라와 숙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 가에서부터 요단 동편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수 13:28]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과 촌락이니라
[수 13:29]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 가족대로 주었으니
[수 13:30] 그 지경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전국과 바산 경내 야일의 모든 고을 육십 성읍과
[수 13:31]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 가족대로 받으니라

15절 후반부는 요단 동편 지역의 땅 분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 동편 지역의 일부분을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영역은 남쪽으로는 아르논 골찌기에서 북쪽으로는 헤스본을 경계로 하여 모든 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온 나라를 진멸시켰습니다. 성경은 "... 그 땅에 거주하는 시혼의 군주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귀족들은 "...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였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미디안의 다섯 왕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민 31: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모리 왕 시혼은 미디안을 정복하였을 때 그곳에 있었던 다섯 왕을 굴복시켜 조공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들 미디안 다섯 왕은 아모리 족속에 속하면서 독자적으로 행정체제를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시혼 땅의 모든 거민을 멸살하고 그 땅을 진멸할 때에 발람을 함께 죽였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브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22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의 죽음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와 음란죄에 빠지도록 했던 악한 점술가였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죄악에 대해서는 민수기 22장~24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는 우상숭배와 음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진 사람은 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음 또한 자신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 사랑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맺여주신 배우자만을 제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수 13:32]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수 13:33]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세는 레위지파에게 아무런 땅을 분배하지 않

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지파는 오직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레위지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만이 레위지파였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이 자원한다고 해서 레위지파로 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벧전 2:9]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통해 레위지파에 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록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갈 3:29]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누구든지 레위지파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십니다. 영적 이스라엘인이 천국의 축복을 받듯이 영적 레위지파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이러한 축복은 다만 우리가 레위지파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발람의 죄악

가나안 땅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40년 동안이나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꿈을 의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뎠습니다. 그렇기에 모압평지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미있는 때에 마귀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습니다. 마귀는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이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계획했습니다. 마귀의 계획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멸망을 위해 모압왕과 미디안왕들과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이라는 염병에 걸리고 말았으며 그 일로 인해 2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염병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재앙은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은 '음란' 염병이었

습니다. 모압의 음란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며들어와 교묘하게 음란병을 옮긴 것입니다.

"[민 25:1]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민 25:2]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민 25:3]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압은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의 대표적인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브올'이라고도 불리우는 바알신은 생산과 다산(多産)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모압 백성들은 풍성한 생산을 기원하는 의미로 바알신을 섬길 때 난잡한 혼음(groupsex)을 행했으며 사람을 바알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바알숭배자와 바알신전의 여인들과의 음행은 바알신 제사의 절정에 달하는 제사방식이였으며 바알숭배자는 반드시 그런 추잡한 행위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은 발람의 잔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땅에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바알숭배 여인들간에 행음이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행음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3절)고 언급하였습니다. '부속되다'는 히브리어 <이차메드>단어는 '예속시키다' 또는 '멍에를 지우다'라는 뜻으로 뗄레야 뗄 수 없는 완전히 밀착되고 종속된 상태를 말합니다. 모압 여인들의 음행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으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완전히 모압 여인들에게 녹아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이스라엘 전체에 음행이 염병처럼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해당된 자들을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목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명하여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모든 사람을 죽이라 명하였습니다.

> "[민 25: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

> 스라엘을 떠나리라 [민 25:5]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브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죽임을 당한 자의 수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몬지파가 가장 많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었는데 시몬지파의 인구가 이 일로 거의 3,700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시몬지파의 수가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줄어 들었던 것입니다.

> "[민 26:14]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이만 이천이백 명이었더라."

바알브올 음행사건에 연루된 대표적인 인물은 시몬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미디안 다섯 왕의 한 사람인 수르의 딸 '고스비'와 음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창으로 저들의 배를 뚫어 한꺼번에 둘을 죽임으로 모든 염병은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민 25: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모압평지에서 일어났던 음행으로 인한 염병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사건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알숭배 여인들과 음행을 행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공공연한 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비록 이 음행염병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지만 이미 바알 우상에 대한 추악한 음행의 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재앙

모압평지의 염병 사건은 발람으로 인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 사람때문이 아니라 단 한 사람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큰 재앙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수도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두고 두고 큰 수치와 모멸감을 안겨준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치명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 역시 한 사람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갔습니다.

> "[롬 5:12] 이러하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세상적인 정욕에 빠지게 될 때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

가 고통을 당합니다.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큰 고통을 당하지만 모든 고통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잘못을 행할 때 그 죄 값은 온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할 때에 그 죄 값은 자손 삼 사대에 이르기까지 죄 값이 이어집니다.

>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출 20: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 20: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발람, 그는 누구인가?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브올에 살고 있었던 복술

가였습니다. 그는 매우 유명한 복술가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모셔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것입니다.

> "[민 22:5] 그가 사자를 브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민 22:6]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앎이니라"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부르기 위해 미디안 장로들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습니다. 모압과 브올까지의 거리는 대략 650km나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렇게 먼 거리에 사는 발람을 급히 불러오게 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심정이 두렵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발람왕의 두려움의 실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모압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람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모압 고원지대에서 눈을 들어 보면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발람을 불라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술가가 복을 비지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사실입니다. 복술가에게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신통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복술가에게만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능력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두 이뤄집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러한 말이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단순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뤄집니다.

> "[요 16: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통적으로 복술가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복술가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입

니다. 세상적인 복술가였던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지만 세상적인 복술가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복술가는 마귀의 힘을 빌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저주의 주문을 걸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술가가 어떠한 초능력적인 힘을 빌어 그런 역사를 행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복술가의 능력은 모두 마귀의 힘을 빌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복술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림이 많았다는 사실과 같은 것입니다. 발람이 어떠한 경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며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발람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복술가에게조차 음성을 들려주셔서 선

택된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처음 발람에게 장로들이 찾아 왔을 때 발람은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매우 잘 듣고 있으며 대화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 22:9]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민 22:10]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민 22:11]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

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민 22:12]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았습니다. 모든 복술가들이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복술가들이 점을 치거나 어떠한 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주로 한적한 곳을 찾습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도 자신의 신과 접촉하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막 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님은 우리에게 골방에게 들어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하였습니다.

"[마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대로 발락에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나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불렀던 발람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화를 냈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압왕 발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발람에게 신변의 위협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대적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발람의 이스라엘 축복의 말을 듣는 발락왕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발람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서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발랍은 화를 내는 발락에게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 임의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민 23:13)고 강력하게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

엘 백성을 축복했던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 24:5]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민 24:6]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민 24:7] 그 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민 24:8]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으리로다 [민 24:9]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찌로다"

또한 발람은 단순한 영적인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의 나라들의 흥망성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민 24:15]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16] 하

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민 24:17]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민 24:18] 그 원수 에돔은 그들의 산업이 되며 그 원수 세일도 그들의 산업이 되고 그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민 24:19]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 24:20]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말렉은 열국 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민 24:21] 또 가인 족속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너의 거처가 견고하니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민 24:22] 그러나 가인이 쇠미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민 24:23] 또 노래를 지어 가로되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 자가 누구이랴 [민 24:24]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게 하리라마는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민 24:25]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발람의 대언한 말을 읽으면 발람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바꾸지 않았으며 들은 그대로 전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에게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18절)고 말하였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엄청난 화를 내는 모압 왕 발락 앞에서도 똑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발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이 장로들을 보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니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 22:13]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

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두번째 모압왕 발락이 장로들과 더 높은 귀족들을 다시금 보냈을 때에도 발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기에 곧장 발람은 길을 떠날 차비를 갖췄습니다.

"[민 22:20]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 22: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민 22:22]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압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고 가로서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없이 자신의 죄가 있다면 그 죄 값을 치루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것이면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민 22:34]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이방인 복술가였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에게 여러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민 24:1]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술을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민 24:2]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 24:3] 그가 노래를 지어 가로되 브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민 24:4]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러져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도 하고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또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라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현이 성령의 감동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면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없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마 11:15]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만 비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는 환상이 열린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육적인 눈이 감겨지고 오히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

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영적인 이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저가 움직이지도 않고 활동하지 않지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일어난 일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여러가지 특별한 증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비록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은 항상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할 수 있었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충만함을 입을 때 우리에게도 발람에게 나타난 여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발람

하지만 발람에게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찾아 왔습니다. 모압왕 발락이 두번째로 높은 귀족들을 다시금 발람에게 보냈을 때 발람의 마음에 약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재리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포착하고 있습니다.

"[민 22:18]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민 22:19]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 보리라"

비록 발람은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히지 못하겠노라"고 말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에 재리의 유혹이 슬그머니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한번 하나님께 모압 땅에 갈 것인지를 여쭸기 때문입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음 장로들이 왔을 때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이 매우 꼼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번 듣고서 곧 바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 비해 여러차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다른 음성듣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발람의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한 것은 매우 심사숙고한 태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람의 심령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깊이있게 묵상할 때 발람의 숨어있는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재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은 처음 들었던 음성과는 사뭇 다른 음성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왕 발락의 유혹이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발람처럼 세상의 유혹에 빠지거나 재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잘못

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성을 가리켜 "선입견 음성"이라고 합니다. 선입견이 들어간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정욕이 묻어져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놀러가고 싶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고 가족끼리 모처럼 야유회를 가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너무나 가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제안을 뿌리치기엔 너무 매몰찬 부모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성령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 바를 성령하나님께 여쭐 때 어저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 가라...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가면서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성령님의 음성은 선입견음성일 가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 속에 세상의 정욕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경우도 선입견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음성을 듣지 않기 위해 늘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정욕도 취해서는 안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는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입견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힌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목사 스스로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선입견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매사에 정욕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지나치게 자만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자기비하하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며 깨끗하게 살아야만 선입견이 없는 깨끗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모압 변경의 끝인 아르논 근처 성읍까지 가서 그를 마중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일개 복술가를 이처럼 대우했을 때는 발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기쁨이 아니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발람이 모압왕

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꾀를 제공하게 된 것도 모압왕의 지극정성어린 환대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모압왕은 발람을 만났을 때 "내가 특별히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면서 "그대야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발람에게 많은 재물과 함께 큰 명예가 주어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발람은 모압왕이 제시한 재물과 명예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일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중에는 발람처럼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는 발람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람의 죄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벧후 2:15]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벧후 2:16]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또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다음과 같이 발람의 죄를 질책했습니다.

"[유 1:11] 화 있을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발람의 꾀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계 2:14] 그러나 네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어난 문제를 보면 주로 하나님의 음

성을 듣는 사람이나 은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범한 성도로 인해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사자가 있는 교회는 능력도 강력한 반면에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보다 성령사역하는 교회를 비교할 때 성령사역 교회의 교인수가 적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기때문에 교인수가 늘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교회내에 발람과 같은 능력자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문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발람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도 잘 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전달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금방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이며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관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때문에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발람과 같은 사람을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 복술가에 대한 기록치고는 매우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입니다. 이

처럼 발람의 내용이 많이 할애된 까닭은 발람의 꾀로 인한 저주가 다시는 임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만 보면 발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였습니다. 비록 발락이 엄청 화를 내고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는 심한 욕설을 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았습니다. 들은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발락과 헤어진 이후에 곧장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디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부족 다섯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묘책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묘책에 모압왕도 가담하였습니다. 결국 발락의 계책대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했고 음행을 저질렀으며 바알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발람의 계책으로 인해 일대 절명의 위기에 처해야만 했고 자칫 잘못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숭배할 뻔 했습니다. 하나님은 곧장 미디안을 치라 명하셨고 모세는 미디안을 쳐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멸망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민 31:7]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민 31:8]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브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 미디안 다섯 왕과 함께 죽임을 당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발람이 자신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발람이 발락과의 헤어진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디안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들은 음성을 변질시키지 않고 들은 그대로 전하였던 발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인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

[수 14:1]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수 14: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수 14:3]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 14:4]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공평하게 분배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은 대제사장 엘리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함께 함으로 땅을 분배케 하셨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해지기 보다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땅을 분배하는 일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포함시키셨습니다. 이는 비록 땅을 분배하는 일이 다소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일로 생각되어질지라도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말에 순종해야 되었던 것은 엘르아살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되돌아 볼 때에 교황과 황제가 서로 협력할 때는 백성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와 행정 지도자와의 관계가 서로 잘 융화되고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수 14: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배할 때에 취했던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땅을 분배할 지에 대해 모세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도 차이가 있지만 더 중요한 차이는 누가 삶의 주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주체가 하나님이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체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 7: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 7: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수 14:6]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수 14:7] 내 나이 사십 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수 14:8]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수 14:9]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수 14:10]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오 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오 세로되
[수 14:11]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수 14:12]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무렵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도록 허락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차 가나안

정복을 통해 가나안의 많은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아 있었던 땅 중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다고 여겨졌던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 되었던 것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읍 또한 크고 견고하였습니다. ".....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12절).

하지만 갈렙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 이 산지를 내게 주소소....."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갈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9절)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대한 아낙 자손이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고 헤브론 산지를 이스라엘 땅으로 삼게 될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전쟁에 나가 싸울만한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그의 나이가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였으니 전쟁에 나가 싸울 나이가 훨씬 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나이는 20세에서 50세 정도까지였습니다. 20세부터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몇 세까지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고는 언급되어있지 않습니다.

"[민 1:3] 이스라엘 중 이십 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지만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참여했다고 기로되었습니다. 이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기간이 50세까지였음을 감안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민 4:3] 곧 삼십 세 이상으로 오십 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러나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은 20세가 아닐지라도 가능하며 50세가 넘을지라도 가능합니다. 비록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지만 그는 스스로 ".....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11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갈렙이 스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 담대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비록 그의 나이가 많았지만 그는 결코 나이가 많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여전히 젊을 때처럼 강건하게 일할 수 있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욱 큰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수 14:13]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수 14:14]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수 14:15]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구를 흔쾌히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갈렙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축복대로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거대한 아낙 자손을 진멸시키고 여러 산지를 정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갈렙이 차지한 산지는 유대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땅은 계란의 노른자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땅은 담대한 믿음에 의해 취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대로 형제에게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형제를 저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저주가 그대로 형제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저주로 인해 형제에게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축복으로 형제에게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세와 저주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에게 축복이 임하며 저주할 때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축복하면 그 형제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가 우리의 축복을 받지 않을 때에는 형제에게 빌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 10: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마 10: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갈렙

성경에서 믿음의 용사로 대표되는 갈렙은 유다지파의 수령이었습니다. 그의 조상은 그나스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서는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나스 족속은 가나안 열 족속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보면 그곳에 그나스 족속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창 15:18-21).

본문에는 '그니스족속'이라고 언급되었지만 같은 족속입니다. 이렇듯 갈렙은 가나안의 그나스족속 사람이었지만 유다지파의 여인과 결혼하여 낳게 된 여분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 가네

스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을 취하실 것을 믿지 않고서 정탐꾼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길 워하여 모세는 각 지파의 수령 12명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였습니다(민 13장 참조).

40일간의 정탐이 끝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이 거대하고 성벽이 견고하다 하여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 13:30)고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갈렙을 향해 "여분네의 아들 갈렘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민 32:12)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가네스바데아에서 38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형벌을 받아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1세대 사람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직 갈렙과 지도자 여호수아만이 살아 남

을 수 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과거 45년 전에 정탐했던 헤브론 땅을 유다지파에게 달라 부탁했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사십 오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팔십 오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 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수 14:6-12).

여호수아는 레위지파에게 속했던 도피성(City of Refuge)인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수 14:13-15).

갈렙은 이스라엘의 최초 사사(Judge)였던 웃니엘의 장인이었습니다. 갈렙이 기랏 세벨(the land of Debir from the giants)을 취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Achsah)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였는데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Othniel Ben Kenaz)이 그 땅을 정복함으로 자기 조카에게 딸을 주어 웃니엘은 갈렙에게 조카이

면서 사위(son-in-law)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

[수 15:1]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는 신 광야까지라

유다지파는 정복한 땅을 각 자족에게 배분할 때에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의 그 어떠한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방식입니다. 만일 유다지파 수령인 갈렙이 땅을 배분해 줬더라면 갈렙의 마음에 든 사람은 훨씬 좋은 땅을 취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비뽑기는 그 어떠한 사람의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어떠한 문제도 야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합니다. 자신이 가진 결정권을 통해 사람을 이용합니다. 자신에게 맘이 드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나중에 여러가지 문제를 만들고 맙니다. 오히

려 하나님의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제비뽑기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직장과 사업터에서도 제비뽑기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이입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욕심을 없애고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수 15:2] 그 남편 경계는 염해의 극단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수 15:3] 아그랍빔 비탈 남편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편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수 15:4]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에 미치며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편 경계가 되리라
[수 15:5] 그 동편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편 경계는 요단 끝에 당한 해만에서부터
[수 15:6] 벧호글라로 올라가서 벧 아라바 북편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수 15:7]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빌을 지나

북으로 올라가서 강 남편에 있는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수 15:8] 또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또 힌놈의 골짜기 앞 서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편 끝이며
[수 15:9]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에 미치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에 미치며
[수 15:10]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편으로 돌이켜 세일 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편에 이르고 또 벧 세메스로 내려가서 딤나로 지나고
[수 15:11] 또 에그론 북편으로 나아가 식그론에 이르러 바알라 산에 미치고 얍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수 15:12] 서편 경계는 대해와 그 해변이니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사면 경계가 이러하니라

유다지파의 경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지파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땅에 비해 유다 땅은 정복하기가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으며 여러 산지가 많아서 전쟁하기도 매우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지파의 족장인 갈렙은 오히려 유대 땅을 차지하길 원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복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갈렙이 유대 산지를 정복하지 않았다면 유대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은 정복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풍성한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취해야 합니다. 그 복을 취하는 자는 풍성함이 있을 것이지만 취하지 않는 자는 부족함이 더할 것입니다.

'아그랍빔 비탈'은 사해 남쪽에서 유다 남족으로 올라가는 비탈진 지대를 가리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간 머물렀던 지역으로써 이곳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습니다.
'헤스론'은 유대 남부 가데스 바네아 서편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앗달'은 다데스 바네아에서 서북쪽으로 대략 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가'는 '아스몬' 부근의 성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스몬'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서북쪽으로 6km 떨어진 곳입니다.
'애굽시내'는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시내를 가리킵니다.
'해만'(海灣) 은 요단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를 가리킵니다.
'벧호글라'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벧 아라바'는 요단 강 하류지역으로서 사해와 매우 근접한 곳입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 할당되었습니다.
'보한의 돌'(the Stone of Bohan)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를 표시한 돌로서 여리고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훔친 결과로 인해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드빌'은 유대 남부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둠밈 비탈'은 여리고 근처 요단 골짜기로부터 예루살렘을 포함한 산지에까지 이르는 길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여리고성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엔 세메스'는 요르단 골짜기 안의 여리고로 가는 노상에 위치해 있었으며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역시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엔로겔'은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골짜기가 합류하는 지점입니다.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힌놈의 골짜기'로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둘러져있는 힌놈 골짜기는 아하스 왕 이래

로 몰록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유아 인신 제사 장소로 악명이 높은 지역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이곳을 '게헨나'로 불리며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마 5:22).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원래 여부스 족속이 이곳에 거주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진 것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힌놈 골짜기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넵도아 샘물'은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대략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매우 좋은 샘물이 있어서 예루살렘 곳곳에 물을 대 줄 수 있었습니다.
'에브론 산'은 넵도아 샘물과 기랏 여아림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산이었습니다.
'바알라 곧 기랏여아림'은 기브온 거민들이 거주한 성읍 중 하나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벧세메스를 거쳐 기랏여아림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세일 산'은 에돔 지경의 산으로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선 상에 위치한 산입니다. 현재는 '사이라

산'으로 추정됩니다.
'여아림 산' 또한 유다 지파의 북쪽 경계선 상에 위치한 산으로서 현제는 '케슬라 산'으로 추정됩니다.
'벧세메스'는 제사장 성읍으로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원래 단지파에게 배정되었으나 아모리인들이 단지파를 쫓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인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려질 때에 벧세메스로 운반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삼상 6장).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25km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아인 셈스'(Ain shems)로 추정됩니다.
'딤나'는 유다 지파의 산지 마을로서 이곳은 삼손이 아내를 취한 곳이며(삿 14:1) 이곳은 벧세메스에서 서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주요 5개 성읍 중의 하나로서 사사 시대 초기 때는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줄곧 블레셋 사람이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블레셋인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에그론 지방으로 옮겨진 적이 있었습니다(삼상 5:10).
'식그론'은 에그론과 바알라 사이에 취해 있으며

유다지파의 북쪽 경계선에 인접해 있었습니다. '얍느엘'은 유다지파의 서쪽 경계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욥바와 가사 사이의 해안 가까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현재 지명은 '야브네'(Yavne)입니다.

[수 15:13]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수 15:14]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내었고
[수 15:15]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수 15:16]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수 15:17]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옷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은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갈렙에 대한 내

용으로 채우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택하여 걸어왔던 동반자였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여호수아처럼 굳건하여서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큰 기쁨을 취하셨을 것입니다. 15장 전체를 갈렙에 대한 내용으로 채우신 하나님의 배려는 갈렙의 굳건한 믿음의 대가와도 같은 것입니다.

갈렙은 정복하기 가장 힘든 헤브론 산지를 취하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제치고 유독 갈렙만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겠다고 나선 것은 갈렙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지파의 족장으로서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해 헤브론 산지는 유다지파의 것이 되었고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적인 지파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미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피곤은 더해 갔을 것입니다. 헤브론의 대표 우두머리였던 '세새'와 '아히만'과 '달매'를 쫓아낸 싸움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랏 세

벨을 쳐야만 했을 때 이미 모든 군사들이 피곤해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기랏 세벨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16절)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는 갈렙이 얼마나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싶어했는지 보여주는 일례가 될 것입니다.

갈렙의 약속대로 기랏 세벨을 점령한 자신의 조카 옷니엘에게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지도자였으며 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딸 악사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결혼이 이뤄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어 오셨으며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세움을 받은 지도자라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수 15:18]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수 15:19]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 샘과 아랫 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는 옷니엘과 결혼하여 출가할 때에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였습니다. 원어에는 '그 밭'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서 일반적인 밭이 아니라 악사가 평소에 갖기를 원했던 특정한 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악사의 요구대로 건네준 땅은 '윗샘'과 '아랫샘'이 있는 밭이었습니다. 평소에 악사는 샘이 많은 그 땅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심지어 부모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떼를 쓰면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항상 자녀에게 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요구대로 부모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

의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아버지께도 있습니다. 하나님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아버지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얻게 됩니다.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 7: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 7: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마 7: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 7: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수 15:20]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수 15:21]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으로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수 15:22]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수 15:23] 게데스와 하솔과 잇난과
[수 15:24]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수 15:25] 하솔 하닷다와 그리욧 헤스론 곧 하솔과
[수 15:26]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수 15:27]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벧 벨렛과
[수 15:28]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댜와
[수 15:29]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수 15:30]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수 15:31]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옷과
[수 15:32]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이십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33]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수 15:34]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수 15:35]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수 15:36] 사아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모두 십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37]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수 15:38]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수 15:39]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수 15:40]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수 15:41] 그데롯과 벧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니 모두 십육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42] 립나와 에델과 아산과
[수 15:43]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수 15:44]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45] 에그론과 그 향리와 촌락과
[수 15:46]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47] 아스돗과 그 향리와 촌락과 가사와 그 향리와 촌락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가에 이르기까지였으며
[수 15:48]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수 15:49] 단나와 기랏 산나 곧 드빌과
[수 15:50]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수 15:51] 고센과 홀론과 길로니 모두 십일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52]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수 15:53] 야님과 벧 답부아와 아베가와
[수 15:54]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

올이니 모두 아홉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55]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수 15:56] 이스르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수 15:57] 가인과 기브아와 딤나니 모두 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58] 할훌과 벧술과 그돌과
[수 15:59] 마아랏과 벧 아놋과 엘드곤이니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60]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라빠니 모두 두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으며
[수 15:61] 광야에는 벧 아라바와 밋딘과 스가가와
[수 15:62] 닙산과 염성과 엔 게디니 모두 여섯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더라

유다 자손은 정복한 땅을 가족대로 배분하였습니다. 유다 자손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족대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자손'은 <미쉬파하>로써 '일족', '씨족', '친족'을 가리킵니다. 이는 한 가족(household)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일족(family)'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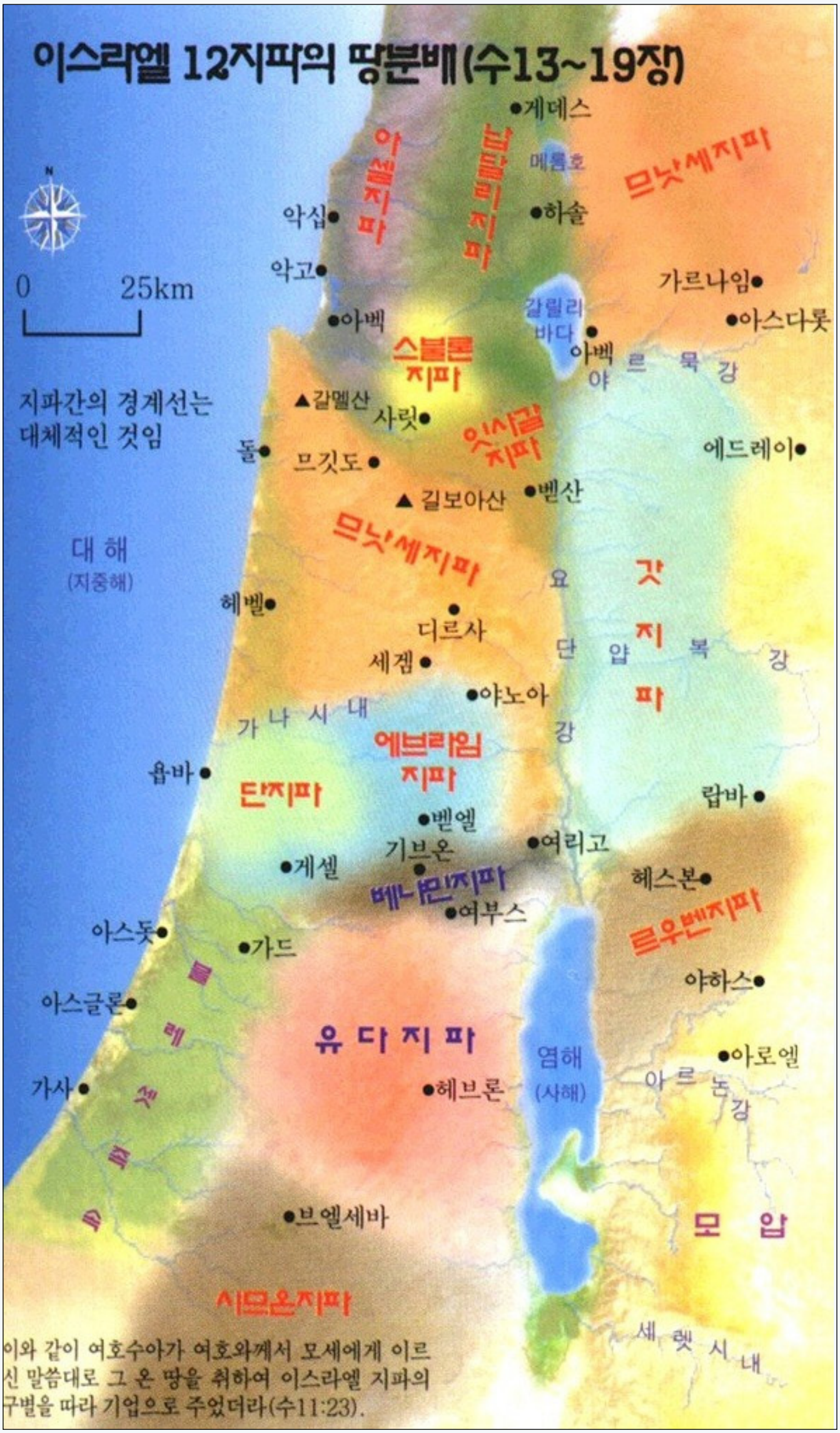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대 나와 가족과 일족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족 개념으로 복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나 한 사람이 잘 할 때 온 가족이 복을 받지만 나 한 사람이 잘못을 행할 때 온 가족이 벌을 받습니다.
21절부터 62절까지는 120개의 주요 성읍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성읍들(21-32절)과 남쪽의 아둘람에서 북쪽의 그데라에 이르는 평지에 있는 성읍들(33-36절)이 있으며 남부 평지의 성읍들(37-41절)과 마레사 중심으로 근처에 위치한 성읍들(42-44절)이 있으며 에굽시내와 연접한 남부해변 평야지대와 애굽과 가나안의 관문지대의 성읍들(45-51절)을 비롯하여 헤브론 산지 지역 성읍들(52-59절)과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지대의 성읍들(60-62)이 포함되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취한 유다 지역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땅이 되었습니다.

[수 15:63] 예루살렘 거민 여부스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유다자손은 여부스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알지 못하나 분명한 것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부스족속은 유다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전히 여부스족속이 진멸되었습니다(삼하 5:1-6).

우리는 주변의 악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악이라도 쫓아내야 합니다. 만일 악을 쫓아내지 못할 때 그 악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악으로 인해 나와 가족이 악에 물들게 될 뿐 아니라 악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땅분배(수13~19장)
게데스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므낫세지파
메롬호
악십
하솔
악고
가르나임
0
25km
갈릴리 바다
아스다롯
아벡
스불론 지파
아벡
르 묵 강
지파간의 경계선은 대체적인 것임
갈멜산
사릿
잇사갈 지파
돌
므깃도
에드레이
길보아산
벧산
므낫세지파
대 해 (지중해)
요 갓
헤벨
디르사
지 단 압 복 강
세겜
야노아
파
가 나 시 대
에브라임 지파
강
욥바
단지파
랍바
벧엘
기브온
여리고
게셀
베냐민지파
헤스본
여부스
르우벤지파
아스돗
가드
야하스
아스글론
블레셋 족속
유다지파
염해 (사해)
아로엘
가사
헤브론
아르논 강
브엘세바
모 압
시므온지파
세렛 시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수11:23).

여호수아서 16장 ==========

[수 16:1]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벧엘에 이르고
[수 16:2] 벧엘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로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수 16:3]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벧 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수 16:4]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요셉 자손은 2지파의 몫을 배분받았습니다. 이는 요셉이 가뭄 가운데 가족을 구한 공적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넘치도록 임합니다. 이러한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리고 샘'은 여리고에 있는 샘물입니다. 이곳의

물은 매우 풍부하여 우기 때는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벧엘'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벧엘은 여리고를 지나 요단 건너편 서쪽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요단지역의 요충지입니다.
'루스'는 야곱이 형 에서의 추격을 피해 외삼촌에게 도망 가는 도중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나중에 이곳을 '벧엘'로 고쳤습니다. 따라서 벧엘과 루스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아렉 족속'은 베냐민 지파 북쪽 경계지역인 아다롯 앗달에 거주했습니다. 다윗의 친구이며 압살롬의 조언자가 되었던 후새가 아렉 족속 사람입니다.
'아다롯'은 그 위치에 대해 확실치 않지만 요셉 자손의 남쪽 경계선과 베냐민 지파의 북쪽 경계선 상에 있습니다.
'야블렛 족속'에 대해 어떤 종족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요셉 자손에게 할당된 가나안 영토에 살았던 종족입니다.
'야블렛 족속'은 요셉 자손에게 할당된 가나안 영토에 살았던 종족입니다.

'벧호론'은 상하로 두 개의 벧호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각각 16km와 20k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후일에 이 성읍들은 북왕국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게셀'은 스블라의 북쪽 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셀 왕 호람은 라기스를 지원하기 위해 원정왔다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수 10:33).

[수 16:5]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벧 호론에 이르고
[수 16:6]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므다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편을 지나고
[수 16:7]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도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수 16:8]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미치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수 16:9]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

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수 16:10]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자손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에브라임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 믿지 않는 자와 잠시 함께 하는 것은 좋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벧 호론에 이르고'는 에브라임 지파의 남쪽 경계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믹므다'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세겜의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아낫 실로'는 예브라임 지파 내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성읍은 믹므다와 야노아 사이에 있습니다.
'야노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동쪽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아다롯'은 '아다롯'이나 '아다롯 앗달'과는 구분되는 지역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북동쪽 국경 도시였습니다.
'나아라'는 나아란과 동일한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답부아'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계선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가나 시내'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경

계를 지어주는 시내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

[수 17:1]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이었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비라 그는 무사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으므로
[수 17:2]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 자손이며
[수 17:3]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수 17:4]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방백들 앞에 나아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기업을 그 아비 형제 중에서 주므로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한대로 기업을 받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11에 보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와 회중에게 나아와 자신들의 당한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하소연은 여자로서 당안 부당한 처사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각 지파별로 영토가 분할되고 각 종족별로 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눠졌는데 오직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민 26: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민 26: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민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찌니라 [민 26:56] 그 다소를 무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찌니라"

슬로브핫의 딸들은 모세가 정한 율법대로 할 경우엔 아무런 기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죽었고 그 어떠한 아들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들만 남아 있는 가정으로서는 아무런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슬로브핫 딸들의 주장은 하나님게 상달되었고 그들은 아버지의 기업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주장으로 인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여인들이 가족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딸 조차 있지 않을 경우엔 가까운 근친 순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 받았을 경우엔 오직 같은 지파의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민 36:6]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찌니"

[수 17:5]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

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수 17:6] 므낫세의 여손들이 그 남 자손 중에서 기업을 얻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에게 속하였더라
[수 17:7]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에 미치고 우편으로 가서 엔답부아 거민의 땅에 이르나니
[수 17:8]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수 17:9] 또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편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편이요 그 끝은 바다며
[수 17:10] 그 남편은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편은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은 아셀에 미쳤고 동은 잇사갈에 미쳤으며

므낫세지파는 유일하게 요단 동편과 서편 모두 기업을 받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요단 서편 지역에 열 분깃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더욱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으로 주를 섬길 때 부모에게 임할 복이 차고 넘쳐 그 자손들에게 풍성히 부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은 곧 우리 자손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수 17:11] 잇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벧스안과 그 향리와 이블르암과 그 향리와 돌의 거민과 그 향리요 또 엔돌 거민과 그 향리와 다아낙 거민과 그 향리와 므깃도 거민과 그 향리들 세 높은 곳이라
[수 17:12]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수 17:13]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자손도 기업으로 받은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

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은 결심하고 우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결심하고 살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와 함께 거할 때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력을 쫓아내야만 합니다.

"[약 4: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수 17:14]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시므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찜이니이까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땅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저들은 "...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14절)였습니다. 이러

한 요셉 지파의 불만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 많았습니다. 이미 므낫세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모세에 의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므낫세지파는 요단 서편 지역의 비옥한 중부땅을 차지했으며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산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적다고 불만을 토한 것은 저들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는 요셉의 공로로 인해 야곱의 축복을 듬뿍 받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고스란히 모세 때에도 적용되었으며 여호수아 때에도 그 축복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저들의 축복은 사사시대에도 이어졌으며 솔로몬 이후의 분열왕국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요셉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저들 스스로를 높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저들 스스로 오히려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수 17:15]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수 17:16]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벧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르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수 17:17]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수 17:18]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호수아는 스스로 큰 민족이라 여기며 다른 지

파보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요셉지파에게 "..... 스스로 개척하라..."(15절)고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의 권고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그 땅이 산지라 그리 좋은 땅이 아니며 더군다나 그 산지에 거하는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지파의 태도는 유다지파의 태도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지파의 수령이었던 갈렙은 오히려 다른 지파가 차지하기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거대한 아낙 자손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요셉 지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좋은 땅을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요셉지파의 불만도 끊임없고 집요하였지만 여호수아의 태도 또한 단호하였습니다. 비록 요셉지파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지파였지만 여호수아는 조금도 그의 뜻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 네가 개척하라....."(18절)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치 큰 형처럼 요셉지파를 달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지파의 지나친 요구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서 오히려 요셉지파를 격려

하고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18절). 우리는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사람에게 오히려 친절하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불평불만에 대해 화를 내고 거부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상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

[수 18: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음이나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길갈에서 성전없이 지내다가 급기야 실로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신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르느라 성막을 짓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대략 7년 동안 이뤄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성막과

함께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전쟁을 치르느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막과 함께 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들이 전쟁 기간동안 기거했던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길갈은 평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소였습니다. 더군다나 단 한 차례로 가나안 족속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얼씬도 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길갈에 있었을 때가 성막을 짓기에 가장 좋은 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막을 짓는 일보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실로에 성막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모세의 성막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방황을 맞게 됩니다. 사사기 기간동안 철저하게 저들의 영적 상태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었고 누울 땅이 제공되었지만 그와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

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성막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에 세워진 성막은 건물형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져 있었지만 모세의 성막에 있어던 모든 성물이 모두 그곳에 안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성물이 곳곳에 뿔뿔히 흩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실로의 성전은 모세의 성막과 같은 온전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백성들이 자주 실로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가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장소로 사용했지만 모세의 성막과 같은 영적인 능력은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

지만 비록 성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세의 성막과 같은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모두 모세의 성막과 같은 성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강하게 임했던 성막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모세의 성막과 같은 성전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성전이 모세의 성막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정결함과 거룩함이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보다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의 성막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성전이고 그 속은 더럽고 추악한 것만 가득찬 성전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성전을 허물어 뜨리실 것입니다. 어찌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수 18:2]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일곱 지파라
[수 18:3]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수 18:4] 너희는 매 지파에 삼 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수 18:5]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의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수 18:6] 그 남은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수 18:7]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수 18:8]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수 18:9]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수 18:10]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다섯 지파 뿐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 받은 두 지파 반과 요단 서쪽 땅을 분배받은 두 지파 반이었습니다. 그들 지파의 이름은 에브라임지파, 므나셋지파, 베냐민지파, 갓지파, 유다지파였습니다. 나머지 일곱지파(베냐민지파, 시므온지파, 베냐민지파, 스블론지파, 잇

시갈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 단지파)는 아직 땅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저들이 땅을 취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온전히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기력이 쇠하여졌고 살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곱지파에게 취하고자 하는 땅을 정탐하고서 그곳의 지형에 대한 지도를 그려 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가 내린 명령은 단순히 취할 땅을 정탐하고 그 땅에 대한 내용을 그리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들로 하여금 직접 취할 땅을 그리게 한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림을 그렸던 땅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일곱지가파가 자신들이 그림을 그려온 땅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예견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살아 생전에 실제로 모든 지파가 땅을 취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일곱지파가 그려온 그림을 놓

고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미 그 땅은 취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지파가 자신들이 그렸던 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취할 땅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땅을 그릴 때에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땅을 취했음을 실제화하는 작업입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당신이 취할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십시오. 당신이 그린 땅만큼 얻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 큰 땅을 그리십시오. 작은 땅을 그리면 작은 땅만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땅은 참으로 크고 넓습니다. 그 땅을 취하십시오. 당신 것입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수 18:11]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수 18:12] 그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편으로 올라가서 서편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벧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수 18:13]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편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벧엘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벧 호론 남편 산 곁으로 지나고
[수 18:14] 벧 호론 앞 남편 산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 남편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방 경계며
[수 18:15] 남방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편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수 18:16] 르바임 골짜기 북편 힌놈의 아들 골

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힌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편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수 18:17] 또 북향하여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 가고
[수 18:18]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수 18:19] 또 북으로 벧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단에 당한 염해의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며
[수 18:20]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의 사면 경계이었더라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에게 취할 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아직 땅이 취하지 못하였지만 그 땅을 정탐하여 그림으로 그려온 것을 보면서 취할 땅을 배분해줬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얻을 땅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실제로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비뽑기는 그 어떠한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생각이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할 때에 비록 좋지 못한 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제비뽑기를 통해 된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비뽑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잘 되게 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힘껏 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기자는 나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제비뽑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에 쉬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꼭두각시와 같은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생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의 맘 속에 불평과 불만이 스며들어 올 때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할지라도 온전히 현재 상황이 최상의 상황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최상의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멀지않아서 더욱 풍성한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항상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최상의 상황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

으시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수 18:21]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벧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수 18:22] 벧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벧엘과
[수 18:23]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수 18:24]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니 십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수 18:25]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수 18:26]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수 18:27]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수 18:28]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앗과 기랏이니 십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는 가족단위로 땅을 배분 받았습니다. 가족은 부부단위로 구성된 가족(household)가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지는 친족까지 포함된 가족(family)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당신에게 임하는 복은 당신의 가족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한 사람이 충성되이 행할 때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

[수 19:1]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수 19:2] 그 얻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수 19:3]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수 19:4] 엘돌랏과 브둘과 호르마와
[수 19:5] 시글락과 벧 말가봇과 하살수사와
[수 19:6] 벧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십삼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수 19:7]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수 19:8] 또 남방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들을 둘러 있는 모든 촌락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라
[수 19:9]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수 19:10]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 가

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경계는 사릿에 미치고
[수 19:11] 서편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에 미치고 욕느암 앞 시내에 미치며
[수 19:12] 사릿에서부터 동편으로 돌아 해 뜨는 편을 향하고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랏으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수 19:13] 또 거기서부터 동편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한 림몬으로 나아가서
[수 19:14] 북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취한 고을 중에서 몇 고을을 분깃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고을을 나눠주지 않았다면 시므온 지파는 아무 분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유다 지파가 애써 취한 고을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나눠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자신들의 땅을 분깃으로 나눠 주었습니다. 유다 지

파의 이러한 선한 행위로 인해 오히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우뚝 섰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마 1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것은 모두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필요한 자에게 "후히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럴 때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형제의 필요를 채워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베푼 것보다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성경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 19:15]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십이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수 19:16] 스불론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갈릴리 지역은 스블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소속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나사렛이란 고을은 스블론 지파에 속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사렛이란 고을은 구약시대 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정

도로 매우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신약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언급된 고을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 크기나 규모가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적게는 10가구에서 많게는 겨우 2천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인구가 작은 고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작은 고을이지만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진 까닭입니다.
스블론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 그 경계가 아주 작습니다. 지극히 작은 지파에 불과하지만 그 가운데 작은 고을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스블론 지파는 매우 중요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블론 지파를 통해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크고 강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크게 변화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수 19:17] 넷째로 잇사갈 곧 잇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수 19:18] 그 지경 안은 이스르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수 19:19]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수 19:20]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수 19:21] 레멧과 언간님과 엔핫다와 벧 바세스며
[수 19:22]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벧 세메스에 미치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십육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수 19:23] 잇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수 19:24]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수 19:25] 그 지경 안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수 19:26]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시홀림낫에 미치고
[수 19:27] 꺾여 해 돋는 편을 향하여 벧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에 달하고 북편으로 입다 엘 골짜

기에 미쳐서 벧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좌편으로 나가서
[수 19:28]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수 19:29]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수 19:30]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이십이 성읍과 그 촌락이라
[수 19:31]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수 19:32]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수 19:33] 그 경계는 헬렙과 사아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얍느엘을 지나 락굼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수 19:34] 서편으로 돌아 아스놋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나가 훅곡에 이르러는 남은 스불론에 접하였고 서는 아셀에 접하였으며 해 돋는 편은 유다에 달한 요단이며
[수 19:35]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싯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수 19:36]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수 19:37]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수 19:38]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벧 아낫과 벧 세메스니 모두 십구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라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배분받지 못한 지파에게 취할 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배분해 주었습니다. 아직 땅이 취하지 못하였지만 그 땅을 정탐하여 그림으로 그려온 것을 보면서 취할 땅을 배분해줬던 것입니다. 이는 믿음으로 얻을 땅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였을 때 실제로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되었습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제비뽑기는 그 어떠한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누구의 생각이나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제비뽑기로 땅을 배분할 때에 비록 좋지 못한 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제비뽑기를 통해 된 것이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제비뽑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내 인생을 잘 되게 해 보겠다고 이리 뛰

고 저리 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서 힘껏 뛰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래서 잠언기자는 나의 인생을 내가 열심히 살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취하시는 제비뽑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땅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실 때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에 쉬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꼭두각시와 같은 인생 같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꼭두각시 인생이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당신의 맘 속에 불평과 불만이 스며들어 올 때에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현재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지금 처한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할지라도 온전히 현재 상황이 최상의 상황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위해 최상의 상황을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 멀지않아서 더욱 풍성한 기쁨의 환경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불평하게 될 때 당신의 삶은 항상 힘든 삶이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최상의 상황을 마련해 주셨음을 믿으시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수 19:39]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는 가족단위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가족은 부부단위로 구성된 가족(household)가 아니라 그런 가족들이 모여서 형성되어지는 친족까지 포함된 가족(family)을 의미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때 당신에게 임하는 복은 당신의 가족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한 사람이 충성되이 행할 때 그 가족 전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수 19:40]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수 19:41]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수 19:42]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수 19:43] 엘론과 딤나와 에그론과
[수 19:44] 엘드게와 깁브돈과 바알랏과
[수 19:45]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수 19:46]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수 19:47]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수 19:48]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단 지파는 원래 자신들이 그려왔던 그림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직접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차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은 넓고도 큽니다.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지파처럼 부지런함입니다.
단 지파는 예정되었던 경계에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가족과 자식을 위해 더 많은 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으로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저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대가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신은 거뜬히 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이든간에...

[수 19:49]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수 19:50]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수 19:51]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땅을 배분 받은 후에 비로소 자신을 위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땅은 에브라임 산지 딤낫세라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그가 받은 땅은 그리 크지 않는 성읍이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태도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본 받아야 합니다. 마땅히 지도자는 여호수아처럼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자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높아지는 비결임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마 23: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욕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에게 욕심이 있었다면 그는 더 좋고 더 많은 땅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총 지도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자손들과 같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았으며 그것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받은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 욕심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욕심은 세상의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명예욕이나 권세욕도 버려야 합니다. 재물욕도 버려야 합니다. 학업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나 능력을 더욱 키우려는 욕심 또한 버려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욕심도 버려야 하며 배우자에 대한 욕심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아버지에 대한 부분만 남겨 두고서 그 어떠한 것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높아지지도 않으셨으며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편안하게 살려는 욕심도 버리셨으며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도 버리셨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셨으며 없을 땐 굶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욕심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약 1: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비뽑기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입니다.

"[잠 16: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의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고랄>인데 이는 제비뽑기에 사용되는 조약돌을 의미합니다. 제비뽑기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만 행해진 방법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제비뽑기 방식을 취했던 나라가 많습니다.

구약성경에서의 제비뽑기

이스라엘 백성은 제비뽑기 방식이 하나님의 절대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우림과둠밈을 통해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간케 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소개되는 속죄제는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바쳐진 두 염소가 있었는데 그 중 한마리를 제비뽑아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

졌습니다.

"[레 16:7] 또 그 두 염소를 취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레 16:8]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찌며 [레 16:9]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레 16:10]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찌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후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종족별로 땅의 위치를 정할 때에도 제비뽑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민 26: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찌니라 [민 26:56] 그 다소를 무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찌니라"

가나안의 첫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진멸한 이후에 조그마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오히려 패배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누

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때문에 패배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해 12지파 중의 유다지파를 선택하시고 유다지파의 세라종족이 선택되고 계속적으로 제비뽑기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 방식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냈던 방식이었습니다(수 7장 참조).
이러한 하나님의 제비뽑기를 통한 절대능력은 사울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여쭸던 사울이 하나님께서 도무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자 누군가의 죄로 인해 그렇게 됨을 알고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잘못으로 인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요나단이 사울의 명령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꿀을 먹었기때문입니다(삼상 14장).
그 밖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삼상 10:21,22). 제사장, 찬양하는 자, 성전 문지기 등의 직무를 위임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으며(대상 24:5; 25:8; 26:13), 정해진 기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데에도 제비를 뽑았습니다(느 10:34; 11:1).

신약성경에서의 제비뽑기

하나님은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유다가 죽었을 때 새로운 제자를 선택했을 때 제비뽑기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행 1:23]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맛디아라 [행 1:24]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행 1:25]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행 1:26] 제비 뽑아 맛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는 철저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제비뽑기 방식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제비뽑는 방식은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불화를 없게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우 공평한 것입니다. 또한 제비뽑기를 통해 누군가 선택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믿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

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0장 ==========

[수 20: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 20: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수 20: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수 20: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수 20: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찌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찌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도피성은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기 위해 만들라 명하신 것입니다. 이는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으

로 하여금 도피성에 피신케 하여 보복자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회중 앞에서 옳바른 판결을 받을 때까지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 11:30]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

갈찌니라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대제사장의 죽음까지 그곳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의 영적인 의미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은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벌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미워하실지라도 결코 죄인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면서도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히 씻김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수 20: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수 20: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수 20: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찌니라

레위지파에게 주어진 48개의 성읍은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일반 성읍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성읍의 사면 들은 모두 2000규빗의 길이에 해당되었습니다. 2000규빗은 1000m(1km)에 해당되는 길이었습니다. 도피성은 모두 6개로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골고루 배포되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들을 임시적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던 장소입니다. 그곳의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도피성에 거할 수 있었으

며 정당한 재판이 이뤄지기 전까지 거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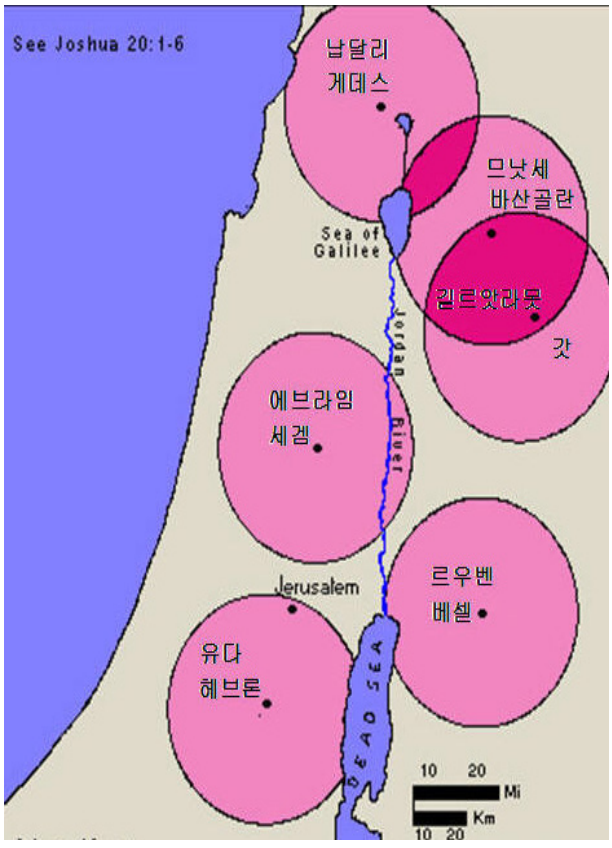
도 피 성

도피성이란?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같이 도피성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을 말하는데 이들이 회중 앞에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민 35: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 가거든 [민 35:11]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민 35:12]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민 35:13]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민 35:14] 세 성읍은 요단이 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를 당한 가족이나 부족사람들이 죽은 사람의 원한을 갚기 위해 무차별 살육을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도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쳐서 죽인 경우나 기

회를 엿보지 않고 우연히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보지 못한채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민 35:22]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민 35:23]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하려 한 본심도 아닌즉"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하지만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보아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원한으로 인해 손으로 쳐서 죽인 사람의 경우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 "[민 35:16]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7]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민 35:18]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민 35:19]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민 35:20]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민 35:21]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죽이면 그 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도피성의 규례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도피성을 찾아 왔을 때 그 도피성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서 그 사람의 범한 일에 대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들어야 했습니다. 장로들이 그 사람의 범죄에 대해 판결할 때 반드시 두 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다음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에 거주할만한 사람으로 판단이 될 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들여보내 그곳에 거주

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보냈습니다.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면서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도피성을 스스로 벗어난 경우엔 더 이상 보호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스스로 법적 보호망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도피성과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과 동쪽에 모두 3개씩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손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만일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면 도중에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빨리 도피성에 다다를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5]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

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 19:6]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원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달아올라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하나님은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 놓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신 19:3]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

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정하고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이는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도 산 길이 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도 산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 10: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타국인도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 35:15]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

> 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지만 도피성을 벗어나면 생명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이 죽을 때 자신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 "[민 35:25]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 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 "[수 20: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

기 집으로 돌아갈찌니라"

여호수아서 21장 ==========

[수 21:1]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수 21:2]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하매
[수 2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아래 성읍들과 그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같이 자신들의 분깃을 얻기 원했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전쟁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사명은 오직 성막의 일에 종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전쟁을 통해 취한 성읍들을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도 다른 지파와 같이 분깃을 얻도록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민 35:1]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민 35: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민 35:3]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것이라 [민 35:4]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일천 규빗이라 [민 35:5]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이천 규빗, 남편으로 이천 규빗, 서편으로 이천 규빗, 북편으로 이천 규빗을 측량할찌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민 35:6]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 이 성읍이며 [민 35:7]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사십 팔 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민 35:8]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찌니라"

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레위지파에 대한 사랑에 대해 불만스럽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취한 분깃을 레위지파를 위해 내 주었습니다. 이는 레위지파를 위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형제가 보기 싫고 미울지라도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배우자가 보기 싫고 미울지라도 배우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배우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면 배우자가 미울 때는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끝까지 배우자를 사

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따라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 21:4]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십삼 성읍을 얻었고
[수 21:5] 그 남은 그핫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열 성읍을 얻었으며
[수 21:6] 게르손 자손들은 잇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대로 십삼 성읍을 얻었더라
[수 21:7] 므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십이 성읍을 얻었더라

[수 21:8]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들이 이러하니라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그리고 므라리입니다. 고핫 자손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속해 있었습니다. 몇몇 성경 버전은 '고핫'을 '그핫'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고핫'이 맞는 표기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세 아들 자손들에게 공평하게 분깃이 나눠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핫 자손 중의 아론 자손에게는 더욱 귀한 상급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론 자손처럼 별도로 분깃을 받은 자손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조차도 아론 자손처럼 특별한 분깃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손에게도 특별한 분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론 자손에게만 특별한 분깃이 돌아갔습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성막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일은 모두 중요한 일이겠으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무엇보다 더 중요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많은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예배만큼 강하게 받으시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최상으로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모든 것보다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 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수 21:9]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수 21:10]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수 21:11] 아낙의 아비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사면 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수 21:12]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수 21:13]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또 립나와 그 들과
[수 21:14] 얏딜과 그 들과 에스드모아와 그 들과
[수 21:15] 홀론과 그 들과 드빌과 그 들과
[수 21:16] 아인과 그 들과 윳다와 그 들과 벧 세메스와 그 들이니 이 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내었고
[수 21:17]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들과 게바와 그 들과
[수 21:18] 아나돗과 그 들과 알몬과 그 들 곧 네 성읍을 내었으니

[수 21:19]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이 모두 십삼 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수 21:20] 그 남은 레위 사람 그핫 자손의 가족 곧 그핫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수 21:21]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과
[수 21:22] 깁사임과 그 들과 벧 호론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수 21:23]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들과 깁브돈과 그 들과
[수 21:24] 아얄론과 그 들과 가드 림몬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수 21:25]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아낙과 그 들과 가드림몬과 그 들이니 두 성읍이라
[수 21:26] 그핫 자손의 남은 가족의 성읍이 모두 열과 그 들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지파 자손들에게 분깃을 나눠 주려고 제비뽑기를 하였을 때 아론 자손이 첫째로 뽑혔습니다. 일부러 아론 자손이 먼저 뽑

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 자손을 먼저 뽑히게 하시고 아론 자손에게 먼저 상급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충성되이 해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한 자를 모른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수 21:27]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수 21:28] 잇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들과 다브랏과 그 들과
[수 21:29] 야르뭇과 그 들과 언 간님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수 21:30]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들과 압돈과 그 들과
[수 21:31] 헬갓과 그 들과 르홉과 그 들을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수 21:32]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들을 주었고 또 함못 돌

과 그 들과 가르단과 그 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수 21:33]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 모두 열 세 성읍과 그 들이었더라
[수 21:34] 그 남은 레위 사람 므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욕느암과 그 들과 가르다와 그 들과
[수 21:35] 딤나와 그 들과 나할랄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수 21:36]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들과 야하스와 그 들과
[수 21:37] 그데못과 그 들과 므바앗과 그 들이니 네 성읍이요
[수 21:38]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들과
[수 21:39] 헤스본과 그 들과 야셀과 그 들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수 21:40]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이니 그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십이 성읍이었더라
[수 21:41] 레위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팔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
[수 21:42]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지파 자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던 성읍은 '도피성'이었습니다. 도피성은 살인자를 피신케 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자손들에게 도피성이 주어진 까닭은 마땅히 레위지파 사람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에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가장 앞장서야 하는 신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도피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피성이 있어야만 죄 지은 형제를 피신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내가 만든 '도피성'에 안전히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도피성'에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 6: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

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마 6: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당신의 도피성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당신의 도피성에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 어떤 사람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도피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안전을 느끼며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도피성이니 당신 스스로 죄지은 사람을 인도해야 합니다.
당신의 도피성에는 당신의 배우자도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도 들어가야 합니다. 당신에게 사기를 쳐서 당신의 재물을 탕진시켜버린 사기꾼도 들어가야만 합니다.

[수 21:4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잊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며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에 따라 그에 따른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언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무런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복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을 이룬 것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부와 명예를 다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것이 아님과 같습니다. 비록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좋은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비록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다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보기에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기도하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여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듯이 우리의 의로움은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과 일대일

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해 들을 수 있으며 목사나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게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들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질병이 임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것은 성도간의 지켜야 할 관습이나 질서를 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는 애굽의 질병이 임할 것입니다. 성도간의 지켜야 할 예의가 있습니다. 성도간의 예의를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애굽의 질병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은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 내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케 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신 28:1]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 28:2]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신 28:3]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4]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5]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신 28:6]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 28:7]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신 28:8]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신 28:9]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

임이니라 [신 28:10]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신 28:11]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신 28:12]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 28:13]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신 28:14]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수 21:44]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수 21:4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안식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안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하는 민족들로 둘러 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저들과 함께 살아왔던 이웃 민족들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멸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들처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계획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족속들로 인한 분쟁이나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년 가나안 정복 이후에 모처럼 안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안식 한

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무엇이 바쁜지 항상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역동적으로 일할 40-50대 중년 남자들이 빨리 세상을 떠나는 이유는 안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안식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십니다. 안식은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돈이 많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안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며 그 안식은 세상이 주는 안식과는 전혀 다른 안식입니다.

주님은 참된 안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호수아서 22장 ==========

[수 22:1] 그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수 22:2]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수 22:3]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수 22:4]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수 22:5]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수 22:6]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 요단 동편으로 떠날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동안 세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들이 모세 때에 그렇게 할 것을 서약했기 때문입니다.

"[민 32:25]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의 종 된 우리는 우리 주의 명하신대로 행하리이다 [민 32:26] 우리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민 32:27]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와 맺은 서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저들을 불러 ".....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2-3절)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는 못했지만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저들을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요단동편으로 떠나게 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가족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자신들의 서원했던 대로 끝까지 형제들을 떠나지 않은 채 선봉에서 전쟁을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행위를 보시고 저들로 하여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헌신을 보시며 크고 놀라운 상급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헛되이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 2:10]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찌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수 22:7]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수 22:8]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수 22:9]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여호수아는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가 요단동편으로 떠날 때에 많은 재산과 가축과 여러가지 좋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좋은 것들을 형제와 나누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좋은 것들을 형제와 나눌 때 하나님의 보다 풍성한 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푸는 자의 손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형제에게 나눠 주면 더욱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눅 6: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수 22:10]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 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수 22:11]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 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에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수 22:12]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하니라
[수 22:13]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수 22:14]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열 방백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 천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르우벤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은 요단 동편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였을 때 이미 그 땅은 저들의 소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요단 동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장 선봉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봉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7년 간의 가나안 땅 1차 정복기간을 끝내고서 저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갔을 때 저들의 마음은 참으로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나긴 전쟁동안 자신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고 그리운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귀하고 좋은 땅과 성읍들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감격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서 저들은 함께 모여 요단 언덕가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제단을 가리켜 "보기에 큰 제단이

었더라"(10절)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역성경 KJV(King James Vision)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였고(a great altar to see), RSV(Revised Standard Vison)는 '규모가 큰 단'(an alter of great to see)라고 번역했으며, NIV(New International Vision)는 '위풍당당한 단'(an imposing alter alter)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한 Livlng Bible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큰 기념비'(a large monument for everyone to see)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큰 제단을 세운 것때문에 요단 서쪽에 거주하였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에게 오해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제단은 실로에 세운 성전과 비슷한 모양을 갖추었거나 더 큰 제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쪽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제단을 쌓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쪽의 이스라엘 민족은 동쪽 동족의 행위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급기야 실로에 온 백성이 함께 모였으며 동쪽 자손들을 진멸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위험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분

노한 백성들을 잠시 멈추게 하고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수령들을 파견하여 그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침착함과 지혜스러움으로 인해 서로간의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서 행했던 적도 간간히 있지만 대부분의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했습니다. 이는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참조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놓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으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알려 주십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은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각 교회의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그 어떠

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 22:15]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수 22:16]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수 22:17] 브올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수 22:18]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수 22:19]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외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

도 패역하지 말라

[수 22:20] 세라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었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비느하스는 르우벤자손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에게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먼저 '브올의 죄악'을 언급했습니다. 브올의 죄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머물렀을 때 모압의 바알신을 숭배함으로 인해 온 땅에 염병이 들어 엄청난 환난을 겪었던 죄악을 말합니다. 그 당시 모압은 진격해 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한 나머지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였고 발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작전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도록 했습니다. 발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의 수많은 남자들을 유혹하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24,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민족에 음란과 우상숭배

가 들어오게 되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민 25:1-9).
비느하스가 그때의 죄악을 가장 먼저 설명한 것은 그가 그때의 염병 사건을 끝나게 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한 음행과 우상숭배의 염병을 가져다 주었던 시므리와 고스비를 비느하스가 저들 침소에 들어가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꿰뚫어 죽임으로서 염병에 종지부를 찍었던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그 사건을 가리켜 '브올의 죄악'이라고 언급했던 것은 '브올'이 '브올 지방의 바알'이란 뜻의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브올 지방은 바알이 숭배되었던 성읍 이름입니다.

[수 22:21]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수 22:22]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께 패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치 마

시옵소서
[수 22:23] 우리가 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혹시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혹시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어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수 22:24]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 22:25]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수 22:26]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단 쌓기를 예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수 22:27]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 번제와 우리 다른 제사와 우리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으로 후일에 우리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분의가 없다 못

하게 하려 함이로라
[수 22:28]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열조가 지은 여호와의 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뿐이라
[수 22:29]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단 외에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고 오늘날 여호와를 좇음에서 떠나려 함은 결단코 아니니라 하리라

비느하스는 저들에게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19절)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동쪽 편에는 성막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들이 성막이 없는 땅에 사는 것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을까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브올의 죄악 외에 또 다른 죄악을 언급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간의 죄악을 통해 한 사람 혹은 한 자손의 죄악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간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20절)는 말을 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물건을 탐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헌납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오늘날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곧 아간의 죄악과 같은 죄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 아간의 온 가족과 짐승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간의 죄악을 행하고 있다면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

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 3: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말 3: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수 22:30]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 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수 22:31]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치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수 22:32]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방백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러 회보하매

[수 22:33]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거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 하지 아니하였더라

[수 22:34]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엣이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요단 동편 자손들이 요단 서편 자손들에게 오해를 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유는 훗날에 요단 서편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 자손들을 보고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24절)고 말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요단 서편 자손들과 똑같은 이스라엘 자손임을 나타내 보이고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이 왜곡되어 요단 서편 자손들에게 오해를 불러 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원통스러워하며 ".....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22절)라며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진실을 아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은 상처 뿐이로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요단 동편 자손들은 요단 서편 자손들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모를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진실을 알고 계심에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진실을 알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큰 비중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더라도 나의 비중이 사람에게 더 치우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사람에게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동편 자손들의 마음이 사람에게 좌지우지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저들의 마음은 한없

이 슬프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단 서편 자손들의 오해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진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요단 서편 자손들의 오해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진실되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됨을 알고 계심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진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진실을 알고 계심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되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

[수 23: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수 23:2]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수 23:3]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수 23:4]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수 23:5]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수아가 늙었습니다. 그는 11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수 24:29]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 십세에 죽으매"

그가 모세의 정탐꾼으로 선택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대략 40세 전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의 나이가 40세였기 때문입니다.

"[수 14:7] 내 나이 사십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만일 여호수아의 나이를 대략 40세라고 가정했을 때 그가 110세에 죽었으니 가나안 정복 후 대략적으로 20-25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가나안 1차 정복기간이 7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1차 정복기간이 끝났을 때엔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7개의 지파에 명령

을 내려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수 18:4] 너희는 매 지파에 삼 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개의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앞으로 차지할 땅의 그림을 그려왔지만 무려 20-25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전혀 땅을 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가 죽기까지는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18-19장입니다. 15-19장에서는 요단강 서쪽편에서 아직까지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일곱지파들의 땅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그곳에 거하고 있는 원주민을 쫓아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어느 정도는 저들에게 속한 땅을 정복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 의하면 아직까

지 이들은 여전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일곱지파가 저들에게 주어진 땅을 어느 정도는 정복하였으나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지파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땅은 정복하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악의 세력을 뿌리채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의 세력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정복했을 때 그곳에 거주했던 원주민도 완전히 정리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곳에 거주했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고서 오히려 저들이 함께 살도록 배려해 준 것이 훗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우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속해 있는 땅을 살펴 보십시오.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없습니까? 악의 세력을 쫓아 내십시오. 거주하는 귀신들을 쫓아 내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고 당신의 가족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당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수 23:6]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수 23:7]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수 23:8]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수 23:9]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6절)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7절)며 우상숭배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매우 중요한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9절).

가나안 1차 정복 이후에 20-25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로운 시절을 맞았습니다. 20-25년이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긴 세월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동안 전혀 전쟁이 없었습니다. 매우 강렬했던 가나안 1차 전쟁을 치룬 후에 이렇게 긴 세월동안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멸망을 당한 족속들이 참으로 많았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모색하고 또 모색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족속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들을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안락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안락함과 평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안락하고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수 23:10] 너희 중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수 23:11]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 23:12]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수 23:13] 정녕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이 천 명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저들의 능력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대신하여 적군과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11절)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족속과 혼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실제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함으로 인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는 것으로 인해 끔찍한 인생의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들을 미워하시며 저

들로부터 모든 도움의 손길을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끊으실 때 우리에게 모든 역경과 환난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였다면 속히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삶은 행복과 멀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만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들이 더 깊은 관계로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 23:14]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수 23:15]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수 23:16]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호수아는 온 세상 사람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가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깨달은 진리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잘 지켜 행할 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만 만일 언약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는 여호수아의 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되십니다. 복의 근원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실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

[수 24:1]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 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수 24:3]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수 24:4]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수 24:5]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수 24:6]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

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수 24:7]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었느니라
[수 24:8]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수 24:9]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브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수 24:10]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 내었으며
[수 24:11]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

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며
[수 24:12]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세겜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유언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세웠음을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은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의 근원이 되었던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지 아니한 가정에서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지 않는 자에서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된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 24:13]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을 취하였으며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은 복있는 삶입니다. 내가

세우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았지만 저절로 얻게 된 복이 있다는 것은 실로 복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러한 복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하면 그런 복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런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예비된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 스스로 막음으로 인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예비된 하나님의 복이 막아지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여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간섭하려 합니

다. 그런 간섭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의 할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화스럽게 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 원하시며 받으신 영광을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형통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롬 8: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수 24: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수 24: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신앙고백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5절). 이러한 여호수아의 신앙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요한은 말과 혀로만 하지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호수아는 일생동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모두 이러한 신앙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며 얼씬 거리지 못할 것입니다.

[수 24:16]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수 24:17]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수 24: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수 24:19]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수 24:20]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수 24:21]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수 24:22]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수 24:23]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수 24:24]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신앙고백을 듣고서 자신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16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들의 신앙고백을 듣고 즐거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듯 다소 쌀쌀맞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던 것은 저들의 신앙고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은 여호수아의 고백이나 백성들의 고백은 똑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기 대문이고

큰 기적과 이사로 백성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 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게 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신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섯 으뜸이 되는 신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뿐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것입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단 한 분 뿐이신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며 그런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에

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재정을 충만케 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설령 당신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설령 당신에게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설령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당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수 24:25]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수 24:26]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세우고
[수 24:27]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라 그런

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수 24:28]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수 24:29]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십 세에 죽으매
[수 24:30]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딤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딤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이었더라

한 평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위대한 전사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젊어서 모세의 보좌관이 되어 성실되이 모세를 잘 보좌하였으며 모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켰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실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출 33:11]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기도 후에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충실되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도 용감했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선두에서 지휘를 했으며 매번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한 그는 천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배려해줬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귀하게 여겨 전쟁 중에서도 그 여인을 구출하는 배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뛰어남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모세에 비해 성막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은 있겠으나 단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1차 정복기간

인 7년 동안 모세의 성막을 세우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쟁이 모두 끝나고서야 비로소 실로에 성전을 세운 것은 그가 성막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땅에 대해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다른 모든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한 다음에서야 자신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며 심지어 그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수 24:31]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수 24:32]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 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

더라

[수 24:33]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으매 무리가 그를 그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경은 ".....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31절)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만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일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했던 백성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가장의 영향력은 온 가족에게 미칩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교회 교인들에게 그의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됩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여호수아서

초판발행 2026. 4. 18
지 은 이 데이빗리 목사
펴 낸 이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초강추! CHANCE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참영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국제 신학교



감격한 능력으로 감격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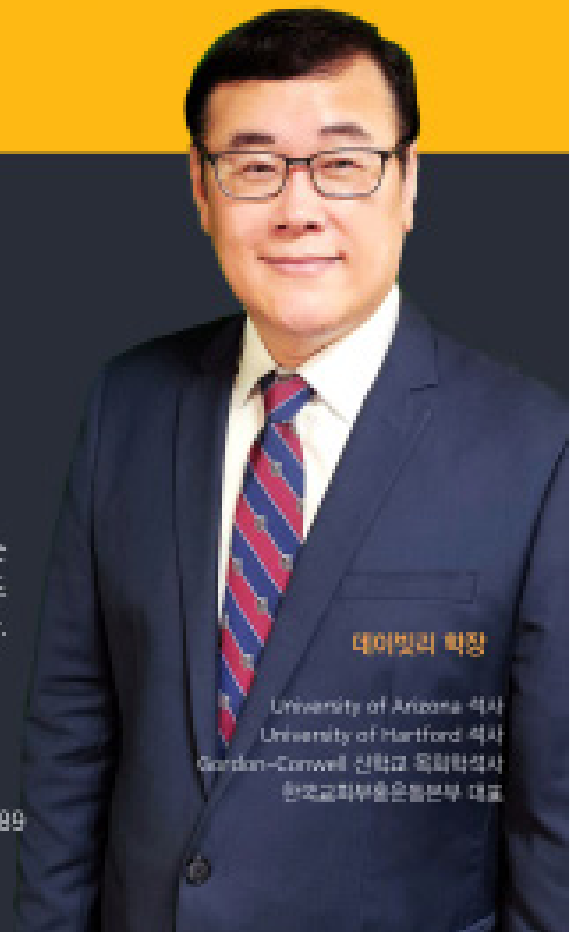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